현대불교

제 79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7월 28일 수요일 (음력 6월 17일 · 불기 2554년 · 주간)







“야호! 여름이다” 불심도 기르고 물놀이도 하고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7월 20~23일 보은 법주사와 유스타운에서 ‘제13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체험과 건전한 어울림 활동을 통해 바른 심성수련과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청소년 1250명과 지도자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우공양, 108배, 부채 만들기, 수상활동, 음악놀이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재완 기자

영산강에 ‘문수선원’ 개원

8월 8일부터 열흘 간 4대강서 문수 스님 유골 산골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문수선원이 7월 29일 광주 문빈정사와 영산강 승촌보에 들어선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최근 “영산강을 거점으로 4대강에서 뭇 생명 살리기 활동을 펼칠 문수선원을 여주 여강선원, 공주 금강선원, 서울 한강선원, 창원 낙동강선원에 이어 5번째로 세운다”고 밝혔다.

문수선원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 4대강 사업의 뜻을 펼쳐나가는 선원이라는 뜻이다. 문수선원의 선원장은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이 맡았다.

문수선원에서는 법선 스님 외에도 노래하는 범능 스님, 각 종단 성직자, 영산강 살리기 시민행동(공동대표 임낙평)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4대강 뭇생명을 살리기 위한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빈정사 내 문수선원에서는 무등산을 오르는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사찰 주변에 영산강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전시, 서명운동 등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영산강 승촌보에서는 스님들과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알리고, 108배 등 참회기도로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이어간다.

이에 앞선 20일 창원시 동읍 본포리 뒷산에서는 낙동강 선원(선원장 자흥,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이 문을 열었다.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를 이어갈 낙동강 선원은 수행공간으로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점안식에 이어 진행된 개원식에는 전망대에서 수신재를 봉행하며 4대강 생명 · 평화 파괴를 참회했다. 용왕제에는 스님들과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흥 스님은 “물은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병기 부지사는 “큰 비가 아닌데도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성찰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는 8월 8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낙동강, 금강 , 영산강, 한강 등에서 문수 스님의 유골 산골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은 낙동강 선원에서 산골의식을 치른다. 산골의식은 문수 스님 도반 대표인 각운 스님을 비롯해 도반 스님들과 추모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위는 8월 13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주제로 심포지엄도 함께 준비 중이다.

이상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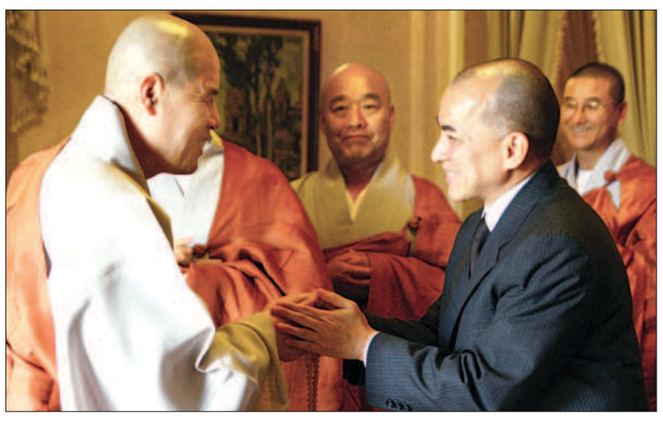
자승 스님 “형제국 우애 다지자” 시하모니 국왕

BWC아동센터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에서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과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한국과 캄보디아가 불교국가인 형제국으로서 각별한 우호관계를 이끌어 내자”며 “이를 위해 조계종은 BWC아동센터를 통해 캄보디아를 적극 후원하겠다. 국왕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은 “교육 복지 등에 앞장서준 BWC아동센터의 활동에 감사하다. (BWC아동센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가 형제국으로 우애가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캄보디아 국왕의 환담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화엄회 대표 성직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前 조계종 호법부장 정만 스님 등 BWC아동센터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던 화엄회 스님들과 이경수 주캄보디아 대사 등이 배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홍삼얼 국왕부총리, 민킨 종교부장관 등이 배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7월 22일 캄보디아 왕궁에서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왕 환담 후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자승 스님을 대신해 민킨 종교부장관과 캄보디아 승왕 뗍봉 스님을 잇따라 만나 한국-캄보디아간 불교 교류에 대해 대화했다

이에 앞선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캄보디아 씨엠립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불교를 해외로 알리기 위해 조계종은 해외특별교구 설립 준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순방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불교 알리기를 위해 귀국 후 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이 해외 순방을 비롯해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 · 효율적인 한국불교 알리기를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조계종의 외교 종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 조동섭 기자

초등학교 2곳 기공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따께오주

불교계 국제개발구호 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7월 14일 캄보디아 따께오주에서 초등학교 2곳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이 진행된 2곳 중 한 곳인 ‘뜨랑빼양 뜨라우 금산초등학교’는 250여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조계종 금산사 본 · 말사 스님들과 대중이 1억 3000만원을 후원해 세워졌다. ‘정콧박정순 초등학교’는 故 박정순 여사의 유지에 따라 가족들이 기부한 1억 원 중 8000만원이 건립에 사용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월주 스님, 캄보디아 국방부 논 보팔 총장, 라이쏘카 바티 군수 등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소셜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현대에 적합한 포교 수단” 목소리 높아져

sisyphus79/ “문수 스님 국민추모제 비가 와도 강행한답니다. 서울 광장에서 만납시다”

eunny21저도 가고 있습니다~ RT @sisyphus79 : “문수 스님 국민추모제 비가 와도 강행한답니다. 서울 광장에서 만납시다”

7월 17일 문수 스님 국민추모제에 앞서 트위터에 오른 트윗이다. ‘sisyphus79’가 올린 트윗에 사람들은 곧 동참을 권유하는 140자의 짧은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사람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다. 트위터에는 전국 추모 현장 소식이 속속 올라왔다. 현장 소식이 있는 그대로 알려져 문수 스님의 뜨거운 추모 열기는 49재인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트위터는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젊은 층을 투표로 이끌어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4대강 공사 현장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알려졌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이후 조계사 앞마당에서 펼쳐진 생명살림 평화의 장에서 나눈 참가자와 발표 내용도 실시간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의 덕이 컸다.

특히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는 자연재해, 재난 등을 신속하게 알리며 언론보다 뛰어난 ‘실시간 속보’ 능력을 톡톡히 과시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함은 물론 공의를 담은 의제 선정 등에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련기사 3면 · 이상언 기자

영담 스님 퇴진운동
4대강불교연대 추진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가 7월 28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영담 스님 공직사퇴를 위한 100일 정진’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영담 스님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21일 한강선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00일 정진은 영담 스님의 공개대담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정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천막농성, 피켓시위를 벌이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필요시 26일 회의를 통해 정진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22일 조계종 총무부를 통해 영담 스님에게 공개 대담을 요청했다.

조동섭 기자

▶9 현장-문수 스님 추모제 ▶14 선지식-학명 스님 ▶19 문화-원효, 여명의 여운 남긴다

HOt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멍석(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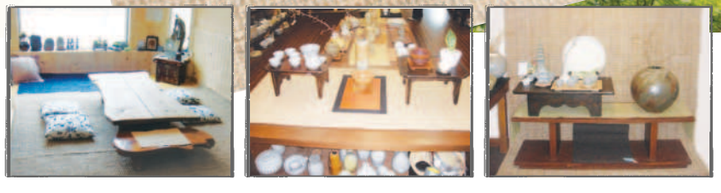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수제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인사 앞두고 말 아끼는 주지스님들

조계종 총무원이 시행한 사찰 주지인사평가를 두고서는 찬반 이견이 많다. 한 스님은 "인사고과제도는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주지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다른 스님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지 인사가 이뤄지거나, 주지역할을 잘해 기반을 닦아 놓으면 떠나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주지 소임을 잘 살아온 스님에 대한 예우를 통해 종단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 스님은 "평가기준 항목이 추상적"이라며 반발했다. 스님은 "평가항목 중 신도수가 몇 명인지 뭐 그리 중요하냐. 각 사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무행정 특성이 다르다. 이를 계측화해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

800점 아래 재임 못한다

조계종, 교계 최초 사찰 주지 인사평가 시행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최초로 사찰 주지 인사평가를 시행했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는 7월 15일 하반기 공찰 주지 임기 만료 예정 사찰을 대상으로 제1회 인사평가 심의위원회를 실시해 추후 주지 인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위원은 직할교구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재무부장 상운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도진 스님, 수불 스님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4차례 실시하고 누적점수를 바탕으로 교구장인 총무원장이 사찰 주지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사찰은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울 중계본동 학도암(주지 법보), 동소문동 청룡암(주지 부경), 정릉3동 경국사(주지 종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봉국사(주지 지철) 4곳이다. 직할교구는 인사고과 대상인 직할교구 공찰 45곳을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초로 시행된 인사고과제도는 종무행정, 포교 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견 등 5가지 평가항목에 따른 20개의 세부항목이 평가 기준이 된다.

평가를 위해서 직할교구는 인사평가에 기초자료로 총무원 서식에 따라 법회 실시 여부, 참석인원, 법회 주제 등의 '법회현황 보고'를 매달 제출하도록 했다. 직할교구사무처에서는 법회현황 보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인사평가 총 점수는 1000점이다. 이중 포교 · 복지가 33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둬 포교와 복지 역할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포교 · 복지활동 평가 세부사항은 신규 신도등록 인원, 신도 교무금 재납부 현황, 법회 참석인원 및 현황, 신도회 구성 여부, 신도교육 및 상담, 포교인력배치 및 예산 운영, 템플스테이 운영실적, 복지사업 현황 등이다.

재정은 270점 만점으로 예산 및 결산액 증감, 분담금 납부, 신규재산취득 및 사찰명 등기 이전 등을 평가한다. 종무행정으로 200점, 불사 100점, 심의위원회 의견 100점으로 항목별 점수를 나눴다.

평가에는 감점 사항도 포함됐다. 화재, 성보관리 미흡 및 소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지된 사찰에는 최대 100점까지 감점한다.

이렇게 평가된 점수에 따라 갑(950점 이상), 을(949~800점), 병(799~600점), 정(599~400점), 무(399이하)으로 등급을 나누게 되며, 800점 이상인 '을' 등급의 주지 이상만 재임 자격이 주어진다. 직할교구 인사평가는 주지 임기 만료 3개월 전 공찰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직할교구 시행 이후 확대해 나간다.

자신의 평가 등급은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명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점수를 원할 시에는 본인에게만 점수를 공개한다.

직할교구사무처 류창무 사무팀장은 "하반기 중에는 공찰의 '법회현황 보고' 제도 운영, 정기 인사평가 매년 시행해 평가 내용을 누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팀장은 "인사고과제도를 통해 주지 스님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침체된 수도권 포교와 복지에 힘쓰도록 하고 종도들의 신뢰 및 공정성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제안

'아젠다' 창조하는 불교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말한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는 일을 보통 사회적 아젠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요즘 불교계의 핵심 화두들은 우리 한국사회 전체의 삶과 관련한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라고 할만하다.

강제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빚어지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은 논란이 된지 오래 되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불러일으킨 자연환경 파괴와 문화재 훼손 논란은 급기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까지 불러왔다. 또한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봉은사 사태 또한 직영사찰 지정이라는 종단 내의 사안이었지만 이를 통해 폭로된 정치권의 외압은 정교분리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의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지난 7월 14, 15일자 중앙일간지에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에 대한 일부 타종교의 불편한 시각을 공세적으로 표출한 신문광고가 실렸던 점이다. 일부 기독교단체 명의의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운영행위를 중단하라'는 광고를 통해 불교계가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문화재 보수예산과 템플스테이 예산이 '부적절한 종정유착'으로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자행한 것이다.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훼불 · 종교편향의 연장선에 있으며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면충돌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는 불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일부 불온한 정치세력의 뒷배경이 의심스러운데 있다. 바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과 맞물려 수천명의 스님들이 서명에 동참하여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표출되던 시기에 뜬금없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젠다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가. 아쉽게도 낙제점이다. 조계종단이 2010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아니, 부족정도가 아니라 졸속에 뒷북이다. 막상 일이 닥쳐서야 허둥지둥 대응하는 졸속처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기를 놓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뒷북도 참 꼴불견인 것만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앞서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불교의 중장기적 비전과 관련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평소 준비하고 설득할 태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계종 33대 집행부는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의 근간은 대화와 설득이다. 그러나 근간의 불교계 위기 상황을 볼 때 대화와 설득은 찾기 힘들다. 불교 내부적으로 종도들과, 불교 외부적으로는 일반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화쟁위원회'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아젠다에 대해 설득력을 갖춰 나가는 자기 논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교문화재와 관련해 왜 국고지원이 있는 것인지, 전체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비율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불교가 기울인 노력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또 불교가 가꾸고 보존해온 사찰림을 정부가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과정과 이로 인해 받아야 하는 불교계의 피해상황이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위해 문화재 유지보수에 관련한 제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아젠다에 대한 불교의 대응은 낙제점
핵심 의제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필요

막연히 국민들이 불교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알아야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공감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로비에나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탈피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 방식은 봉은사 사태가 촉발된 대 정부 정책협의(?)에서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음성적 로비는 정부예산 지원을 합목적성이나 필요 시급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배분과 집행이 생겨날 여지를 만든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불교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근거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개신교의 억지성 주장에는 공세적 대응과 구체적인 논리로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대중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와 더불어 불교정책에 대한 비평 감시 역할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태, 생명, 환경, 문화, 통일, 자비 등등 종교를 떠나 온 국민의 동의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아젠다를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앞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담당할 주체를 종단만이 아니라 온 불교계가 함께 건설해야 한다.

김경호 동화작가

"교류 · 협력의 문 열어라"

통일부, 종교인 등 대북 교류 차단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종교인들의 대북 지원 교류를 차단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종단 대표들의 모임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하 종교인 모임)은 7월 19일 "통일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30여 종교인 방문을 불허하고, 3~4명 또는 5~6명의 실무자들이 밀가루를 싣고 판문점을 건너가서 내려놓고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30여 명은 7월 15일 밀가루 300톤을 개성 주변 취약지역 6곳의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북해당기관과 협의 추진해 왔다. 5 · 24 대북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육로로 북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종교인들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대에 그 뜻이 좌절됐다.

통일부는 9일 종교인 모임에게 개성 방문일정을 내부조율을 위해 26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책임지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지만 16일 돌연 "3~4여 실무자들만 방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종교인 모임은 19일 '종교인의 대북인도적 교류와 협력의 문을 열어달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종교인들의 방북이 위험스럽게 보였던 것 같다"며 "남북 교류와 협의를 정부 당국자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들은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 동포들과 나누는 일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계에 심려 끼쳐 죄송"

안상수 의원, 자승 스님 예방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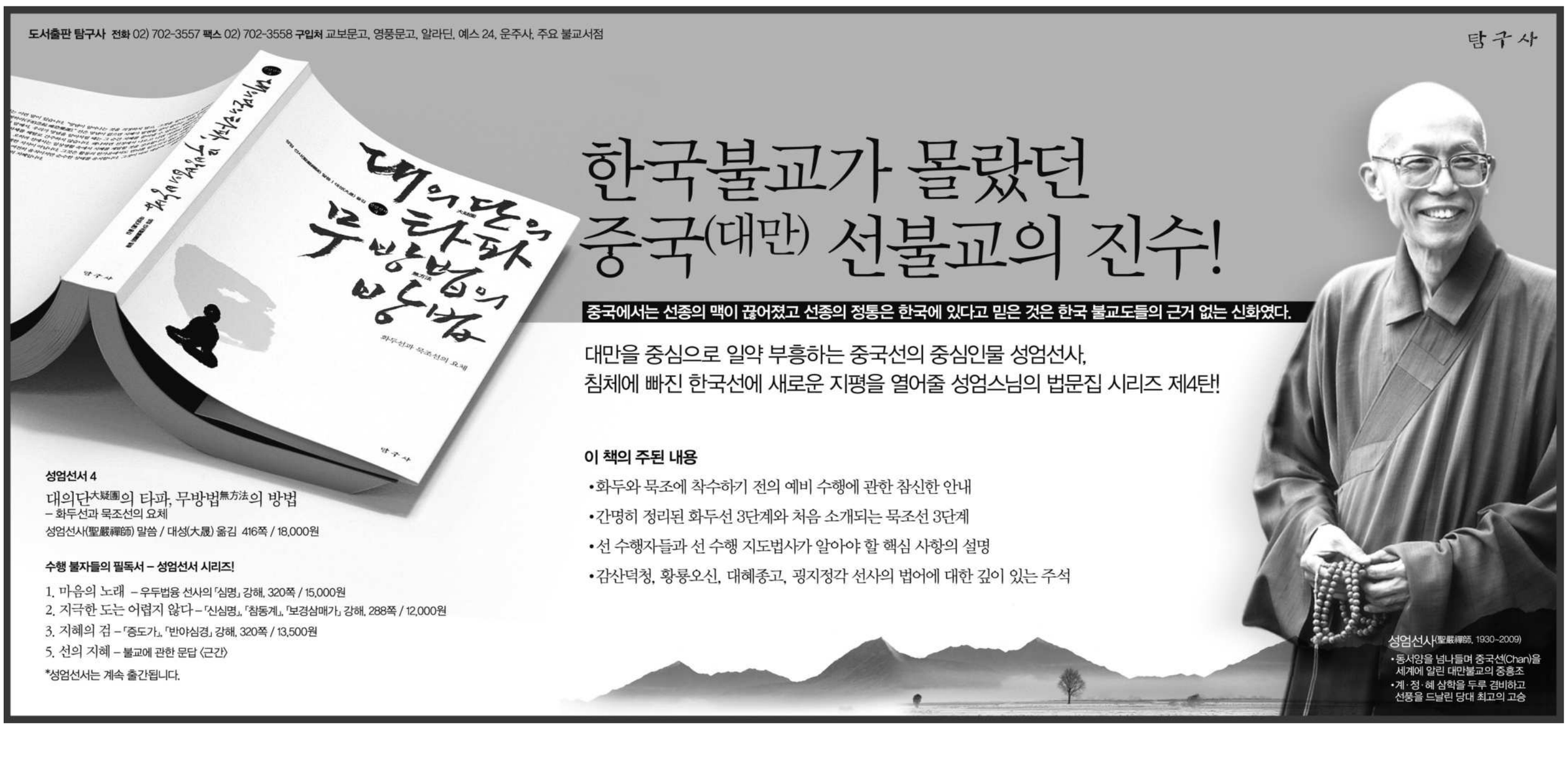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와 임태희 신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홍상표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승 스님을 잇따라 예방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는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덕의 소치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불교 발전하라는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이니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안상수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임태희 비서실장과 홍상표 홍보수석도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글 =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세금낭비 불교 비판 광고
종교갈등 부추기는 정치공작

개신교 단체들이 7월 1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교계가 문화재 · 템플스테이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받아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에, 불교계 단체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의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7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개신교 단체의 악의적인 신문광고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로 정치공작 냄새가 풍긴다"고 비판했다.

연사연은 이날 '2004~2008년 동안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학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교육

연사연 22일 반박 기자회견
"개신교가 선교 목적으로 국고 낭비"

부는 매년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 의거해 '재정결함보조' 항목으로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는 1974년 정부가 학교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학교가 재정난을 겪게 되자 재정결손을 보조해 주기 위해 마련된 예산 안이다.

2008년의 경우 보조금 3조원 가운데 종교사학에 사용된 금액은 63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개신교 4309억원(68.25%), 가톨릭 1106억 원(17.52%)으로 기독교에만 85%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계는 452억 원으로 7.16%에 불과하다.

연사연 김영국 운영위원은 "종교사학 321개 가운데 불교단체가 설립한 사학은 22개, 기독교는 276개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지원 편중은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불교계는 이를 두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의 문화재 지원금은 다시 국가적 일로 환원되지만, 개신교의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한다"며 "개신교야말로 결국 선교행위를 목적으로 국가의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사연측은 개신교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교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과거 유령단체들이 불교계를 비판한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광고게제의 주측은 한기총 소속단체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개신교의 공식단체인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 한국교회언론인회 ·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연사연은 "이는 4대강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이 정권에 편에서서 불교계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MB정권은 종교형평성을 빙자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예산집행을 축소하려는 반헌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계종단은 정부의 국고지원예산에 대해 투명한 집행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교계는 7월 23일 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이광선, 이하 종지협) 운영위원 회의에서 개신교 단체의 종교 및 불교비방 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불교계는 △종지협 차원에서의 종교화합을 위한 역할 모색 △종교화합 호소문 발표 추진 △한기총은 대기총의 행위와 신문광고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할 것 △한기총 회원단체의 신문광고 건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명 등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상언 · 이은정 기자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열렸다

소셜 네트워크는 인드라망의 변주

교계도 디지털 혁명의 본질 깨닫고 포교방법 바꿔야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세상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경주로 여행을 갔다. 곳곳에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설명서와 안내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들을 보수 ·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들이다. 하지만 틀린 정보도 많고, 일방적인 설명위주의 내용이다. 학생들은 사람들과 소감이나 의견을 나누거나, 새로운 내용도 그 자리에서 알고 싶지만 사진만 찍고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몇 억원에 이르는 안내시설(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대신 돈 한푼 안 드는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기존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형식과 내용을 확장해 숫자외에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코드)를 붙여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휴대폰 카메라를 대는 순간 QR코드에 적힌 웹주소의 문서가 휴대폰에 전송되고, 다른 사람들의 소감이 전송된다. 학생들도 추가로 댓글을 달아 유적에 대한 소감을 표시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예술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요 동인 중 하나다.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을 뜻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나 인맥이 곧 소셜 네트워크이고, 마을 앞 정자나 빨래터, 복덕방이 SNS 역할을 해왔다. 단지 오늘날 SNS는 첨단 IT를 이용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할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싸이월드, 미국의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다. SNS는 온라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을 연결해 개인의 취미, 감정, 콘텐츠, 관심사,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체다. 구성원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평판, 관계, 정체성, 집단, 공유 등의 특징이 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트위터는 낯선 사람들을 친구로 맺고, 네트워크 친구들이 쓴 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관심을 보이면서 관계는 더욱 진척된다. 또 다시 네트워크 친구들도 내가 쓴 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어떤 포교가 가능할까?

불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스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이가 있다. 스님의 트위터에 팔로어가 되고,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절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스님은 어떤 방에서 사는지, 사찰 주변 풍경은 어떠한지, 스님이 혼자서 삭발은 어떻게 하는지, 불교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140자의 문구나 사진, 영상을 통해 알린다. 그러면 스님의 팔로어들와 스님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된다.



트위터러가 4대강 생명살림 운동이 진행 중인 한강선원을 지나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떠도는 불교정보 모아 웹상에서 대중공사도 가능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신뢰를 통한 행복 얻기

신도관리도 가능하다. 신도들의 경조사 등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 신도들이 함께 소식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젊은 층이 주 대상일 것 같지만 최근 유명 트위터인 이외수나 정치인 등은 결코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신도 확보 및 포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종교계에도 시민사회단체에도 이런 디지털 혁명의 여파는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의 본질을 깨닫고 체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앞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협동으로 사회는 진화해 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내놓고 더불어 다른 사람이 내어놓은 지식, 정보, 아이디어에 나의 그것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진화시키는 한 명의 협동적 기여자가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승권 불교콘텐츠 온라인 퍼블리싱 프로듀어는 구체적인 안으로 "불교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파편화돼 있다"며 경전이나 문화재 관련 정보, 사찰 설화 등 무형의 정보 콘텐츠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블로거들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배열하듯이 재배열해야 한다. SNS는 취미삼아 블로그에 올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전문화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털싸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떠돌아다니는 불교콘텐츠를 웹 상에서 대중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와 미래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데 대해 더 감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의 말이다. 중요한 것은 "연결에 대한 철학"이다. 앞으로 '공유'하고 '관계'를 만들겠다는 철학이다. 성공을 행복으로 바꿔 이해한다면 2600년 전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과 큰 차이가 없다. 마크 주커버그가 만약 부처님 제자라면 시대에 맞게 포교의 수단을 제대로 만들어 낸 격이다.

김중태 IT문화원 원장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아니다"고 설명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연결, 참여, 공개, 공유, 투명, 진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통한 '행복'이라는 최종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한발 뒤로 물러서려는 이들도 많다. 아예 '그것을 쓰면 우리의 전통적인 면모가 퇴색된다'거나 '옛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는 옛것을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거나 의제를 만들어 해결하면서 참 행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빨리 인식해야한다. 삼라만상이 투영된 구슬들은 서로서로 다른 구슬들에 투영된다. '인드라망'과 같은 원리다. 모든 개인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사 방필석

耕當問奴 (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신생아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화신청환영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계좌번호: 306-07-19442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 국 민 속 철 학 연 구 소 법사 방 필 석

일 주 문



금강경 육조대사 구결 특강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9월 8일부터 열리는 불교인재원 제6차 선지식 초청 불교대강좌에서 '금강경 육조대사 구결'을 강의한다. (02)735-2428



각성 스님 유식30송 특강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7월 21~23일 고창 선운사에서 유식 30송을 특별 강연했다. (063)561-1422



정여 스님 논산 육훈 수계법회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7월 3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 무료 법률상담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8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2)732-2183



평화재단 제3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9월 2일~12월 2일 서초 이오빌 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제3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581-0581



학내 종교자유 특강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7월 26일 부산 대광명사에서 영남지역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학내 종교자유'를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나눔의집 · IBK노조 지원협약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7월 16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정기 후원과 봉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불교아카데미 정기이사회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8월 10일 한정식 대원에서 2010년 불교아카데미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02)2278-1087



대불련 YBC 개최

박경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12~15일 경주에서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실 이전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은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重明殿)으로 사무국을 이전했다. 새 주소는 서울 중구 정동길 41-4번지 중명전 2층이다. (02)732-7524

■ 주지학 개론과 건축 서적 2권 펴낸 원철 스님

"이 책들이 불교 · 사회 소통 도구되길"

각종 언론매체에서 칼럼리스트로 왕성히 활동해오면서 등 불교계 안팎에서 문승(文僧)으로 손꼽히는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최근 두 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왜 부처님은 주지를 하셨을까?>(조계종출판사 펴냄)와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 있네>(뜰 펴냄)이다. <왜 부처님은 주지를 하셨을까?>는 사찰 행정을 맡는 사판(事判)의 대명사 주지(住持)론을,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 있네>는 사찰을 비롯한 국내외 건축기행문을 담고 있다.

원철 스님은 7월 19일 책 출간을 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책들이 사회와 불교가 서로 소통하는 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처럼 두 책에는 주제가 다르지만 수행자의 눈에서 바라본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교계의 상이 담겨 있다. 스님은 먼저 주지의 어원과 뜻풀이부터 시작해 각 사찰 주지에 얽힌 각종 에피소드 등을 모은 <왜 부처님은…>을 설명하며 수행자로의 주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은 "요즘은 '주지시대'라는 말도 있다. 대중도, 심지어 동냥 얻으러 온 거지조차도 절에 오면 주지부터 찾는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이 복잡 다단해지다보니 불법(佛法)을 책임지는 방장과 행정 책임



소임자인 주지로 분화됐다. 주지에겐 행정적인 면만이 점차 강조돼 주지의 불법에 대한 안목은 소홀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주지인사평가가 7월 15일 시행되는 등 불교계에 안팎에서 주지들에 대한 책임이 대두되는 분위기 속에 교육원 소임자이기도 한 스님의 이러한 발언은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원정사에 주석하시며 첫 주지직을 맡으셨는지, 옛 선사들은 어떻게 주지 소임을 보았는지 그 뜻을 새겨볼 시점"이라며 "사회와 불교가 함께 맑아지려면 주지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절집을 물고…>는 개인적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절집을 물고…>는 창덕궁부터 불국사 · 낙산사 등 사찰과 암자, 토굴, 폐사지, 해우소 그리고 서울의 피맛골, 유럽의 가톨릭 수도원 등 여러 종류의 건축물을 둘러본 느낌을 정리한 책이다.

스님은 "2003년 해인사에서 신행문화도량을 가꾸고자 설계 공고를 했는데 당시 언론 홍보 담당의 소임을 맡아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건축에 대해 보다 잘 알기 위해 스님은 신행문화도량 공모로 인연을 맺은 건축가, 문화재 관계자들 10여 명과 함께 유럽 일본 등지로 건축기행을 다니며 사찰과 자연, 종교와 건축의 관계 등 사회와 소통하는 불교에 대한 생각을 모았다.

스님은 "수행자는 중도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안으로 돌아보고 바깥과 소통해야 한다"며 사상과 교육체계의 정비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진제공 = 뜰]

해남 대흥사서 천운 스님 영결식 엄수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영결식이 7월 18일 오전 11시 대흥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명예원로 수산 스님, 지관 스님, 원로의원 지혜 · 밀운 · 고산 · 진제 스님, 혜정 스님(법주사), 동춘 · 원명 · 활안 · 명선 · 정무 스님, 혜정 스님(문수사), 월서 · 현해 · 법흥 · 고우 · 종하 · 월탄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주지스님, 지준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스님, 제22교구 총신도회 김동섭 회장, 주호영 특임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운 스님의 49재는 대흥사(초재, 막재)와 광주 향림사(2재~6재)에서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장애인 직업 훈련원 '위드커피' 개소식



연꽃마을은 7월 16일 경기도 평택에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원 '위드커피'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드커피의 설립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 위드커피에서 일하는 장애인 6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6개월 간 교육(사회성 · 서비스 · 직장예절)과 견습기간을 거쳤다.

박선주 기자

東大 경주캠퍼스, 유학생 장학기금 조성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7월 21일 현대기아협력회 경주분회(지회장 정기범, 광진상공 대표)가 국제화 장학기금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번 장학금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의 항공료 및 생활비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기범 회장은 "이번에 한국에 오는 가나 학생들이 제2의 오바마 같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기아협력회 경주분회는 현대 및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주지역 협력사업체 단체이다.

조동섭 기자

'오현 스님 시세계' 국제세미나 인도서 열려

'만악가타집' 영문 · 힌디어판 출간

오현 스님의 선시의 세계를 조명하는 국제세미나가 인도 욘커사회과학연구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7월 14일 인도 웃따라푸라데쉬 하푸르에서 '인도와 한국의 시정신 공유'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인도의 시인과 작가, 교수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에서는 인도의 시성(詩聖)으로 추앙받는 타고르의 시를 주제로 한 논문 5편, 오현 스님의 시집 <만악가타집(萬嶽伽陀集)>에 대한 논문 5편 등 1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인도의 국민시인으로 존경받는 아쇼크 메이트레이야 박사가 타고르의 <기탄잘리>와 오현 스님의 <만악가타집>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다.

<만악가타집>은 2002년 발간한 오현 스님의 선시집으로, 이번 세미나에 앞서 인도에서 영문판과 힌디어판으로 출판됐다. 영문판은 이치란 조오현상 국제심사위원장이 번역하고, 아쇼크 메이트레이야 시인이 편집했다.



오현 스님의 시세계를 조명하는 국제세미나 후 열린 조오현상 시상식에서 라메쉬 마단 인도 인적자원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교육상을 받고있다. 가운데는 인도의 국민시인 아쇼크 메이트레이야 박사.

세미나에 앞서 제1회 조오현상(Most Ven. Cho Oh-Hyun Award) 시상식도 거행됐다. 아쇼크 메이트레이야 박사가 대상인 국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5명의 시인 · 작가들이 창작상을 받았다. 또 10명의 인도의 중고등학교장에게 교육상을 수여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조오현상은 매년 문학상 1명과 문화 · 예술 · 학술 분야의 창작상, 교육 분야에 공로가 있는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을 운영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2010년 후반기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염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 요 경 전 반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043)646-3800

성폭력 예방 캠페인 불교계도 동참

최근 여성과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계가 주축이 돼 여성 · 아동 성폭력 근절에 나섰다.

'경상북도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장 김장주, 보건복지부 여성국장)는 7월 20일 김천역 광장 및 평화로 일대에서 '아동 · 여성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장 진원 스님,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김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아이 · 여성들이 안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만들기 결의문이 발표됐으며, 이홍화 서예가가 '아이가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예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진원 스님은 이날 결의문에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청소년쉼터운영, 등하굣길 도우미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돼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단일민족 강조는 시대착오"

한국종교연합 '다문화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그에 대한 종교인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은 7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문화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종교연합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가 되는 길목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것이 다문화 가정 문제이다"며 "다문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의 배후에 종교도 갈등구조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종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영담 스님과 이원규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해성 목사와 손장권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영담 스님이 7월 21일 열린 포럼에서 다문화 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성 목사, 영담 스님, 박종화 목사, 이원규 교수, 손장권 교수.

다문화 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영담 스님은 "다문화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원은 바로 사회적 편견에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는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버리자"고 주장했다.

이어 영담 스님은 "그동안 우리는 단일민족, 배달민족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에게 이중적 잣대를 갖다댔다. 급변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배타적 사고와 편협한 자세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면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사회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이원규 감신대 종교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일원적 사고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동의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박탈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종교인의 책무이다. 한국 종교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돌봄에 앞장서고, 다문화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해성 목사는 "이주민을 위한 종교기관의 지원활동 요청 및 조직구성과, 종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주민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해성 목사와 손장권 고려대 교수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종교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주 기자**

진흥원 화요강좌-박대헌 관장

"고서 수집 안목부터 갖춰야"



"고서란 것은 그 주인이 가치를 알고, 그것이 활용될 때만이 빛을 발합니다."

박대헌 영월책박물관 관장(55 · 사진)은 7월 20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열린 대한불교진흥원 화요강좌에서 고서 수집의 목적을 강조했다.

박 관장은 25년간 고서와 동고동락한 고서전문가로 광화문 고서점 호산방 프레스센터 본점과 파주출판도시 지점을 두고 있다. 1999년에는 강원도 영월에 폐교를 개조한 영월책박물관을 설립해 9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강좌는 최근 박 관장이 펴낸 '고서이야기'에 대한 저자 해설 강좌로 고서박물관의 애로점, 고서 수집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갖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 관장은 이날 △(구입하고자 하는) 책을 조심스럽게 살필 것 △책의 흠결을 말하지 말 것 △값을 흥정하지 말 것 △진본은 무리해서라도 살 것 △구입 후 무르지 말 것 △양보다 질을 추구할 것 △타인의 평가보단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 할 것 △수집을 소문내지 말 것 △관심분야만 살 것 등 고서수집에 앞서 유념해야할 수칙을 밝혔다.

박 관장은 "나중에는 모은 고서를 학계나 박물관 등에 기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다문화 가정 서로 알면 만사 OK

한국종교연합(대표 박남수)은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7월 22~23일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종교문화역사 기행(이하 종교문화역사 기행)'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종교문화역사 기행은 한국의 각 종교시설과 교사(敎史) 문화현장을 방문해 한국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열렸다.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대표 정호)의 아이들과 결혼 이주 여성 25명은 23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했다. 김남희 교사는 방문단에게 불교와 사찰 구조, 법구,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종교연합 명신옥 실장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 · 언어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선주 · 사진=박재완 기자

직할교구신도회 창립

조계종 포교원 준비 착착

조계종 신도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룰 신도회가 조직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 · 이하 직할교구신도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8월 15일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조계사 이연숙 신도회장과 도선사 이현수 신도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준비위원은 한마음선원(박종수 신도회장), 금강정사(권태근 신도회장), 사자암(임순자 신도회장), 화계사(장용숙 신도부회장), 진관사(심대근 아버지회 회장) 신도회장 등 모두 9인이다.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발기인총회에서는 이현수 도선사 신도회장이 직할교구신도회 회장에,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이 수석부회장에 내정됐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태고종 보광사 대웅전 낙성법회 봉행



태고종 보광사(주지 지영)는 7월 11일 대웅전 낙성법회 및 사왕명부전 지장보살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혜초 종정스님, 종회의장스님, 문도회장스님, 경북종무원장스님, 성주사암연합회 소속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증명법사 혜초 스님은 "가야산 자락 좋은 가람인 이곳 성주 지역에 부처님 한분이 또 환생하셨다. 부처님 법을 따라 밤낮으로 더욱 용맹정진 수행정진하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경상북도 운문사 만세루 유형문화재 지정



'청도 운문사 만세루(사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7월 14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청도 운문사 만세루(淸道 雲門寺 萬歲樓)'는 도 유형문화재로, '청송 송만정(靑松 松巒亭)'은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

또 '칠곡 송림사 대웅전(漆谷 松林寺 大雄殿)'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해 30일간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청도 운문사 경내에 위치한 만세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一자형'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1105년(고려 숙종10) 원응 국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건립시기는 최근 대웅전 해체수리 시 발견된 기와 명문과 상량문을 통해 17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경기문화재단 천흥사 동종 종각공원 조성

고려 최대 동종 천흥사 동종 제작 1000년을 맞아 남한산성에 종각공원이 조성된다. 경기문화재단(대표 권영빈)은 7월 19일 남한산성에 종각 공원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보 제208호 성거산 천흥사 동종은 고려시대 최대 크기의 동종으로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으로 옮겨진 이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전시실에 소장 · 전시돼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행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천흥사 동종을 모델로 새 종을 제작, 조성되는 종각광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종 제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씨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태고연구원 '태고와 석옥' 출판법회

대륜불교문화태고연구원(이사장 무공)은 태고보우국사 탄신 709주년을 맞아 7월 26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법당에서 평전 '태고와 석옥' 출판법회를 봉행했다. 평전 '태고와 석옥'은 보우 국사의 발자취와 어록 등에 대해 연구 · 조사한 400여 쪽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대륜불교문화태고연구원은 2008년 중국정부와 함께 중국 천호암 사지에서 '태고보우 헌창기념비'를 건립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해외동포의 포교가 더 절실하다

16~18일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대회

조계종 및 각 종단의 국제포교사들이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국제포교사로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16~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10차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교사 대회에는 조계종, 회원종단, 해외거주 포교사, 실무진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포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해외 국가의 성공적 포교사례, 해외포교의 동향 파악, 국제포교사의 정보공유 등 국제포교사의 동기부여와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해외불교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동국대 티벳 대장경 연구소 게셰 텐진 남카 스님의 티벳 불교에서 배운다-티벳 불교의 현황과 해외포교 성공 사례 △미국 이종권 포교사의 미주를 중심으로-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포교사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제10차 국제포교사대회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이 행사 첫째날 불화그리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종단협의회

게셰 텐진 남카 스님은 강연에서 "서양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과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특히 서구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불교신자가 되고 있다. 사성제를 바탕으로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카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재가자 모두 교리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권 포교사는 현재 해외포교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설명했다. 이종권 포교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보다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포교사는 "현재 미주지역의 사찰은 90여개에 불과하지만, 교회는 4000여개가 넘는다. 이것은 정에 굶주린 동포들이 교회라는 장소를 사람들과의 만남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관습대로 한국식 포교를 이어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문화콘텐츠가 풍부하다. 미디어 영상매체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템플스테이 활성화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발 △이주민 지원활동 △국제포교사 역량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포교사회 박상필 회장은 "토론 시간 등을 통해 여러 포교사분들의 고충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포교사 대회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국제포교사는 부처님이 심어 놓은 하나의 씨앗들이다. 앞으로 이 분들의 활동이 점차 발전돼 한국불교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불교만한 가르침 없어"

무비 스님, 행불선원 초청 법문



"세상엔 많은 철학과 주장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불교만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무비 스님(사진)이 7월 18일 행불선원(원장 월호)에 이달의 선지식으로 초정 돼 불교의 우수함에 대해 법문했다.

무비 스님은 "불교의 성격과 특징을 알고 나면 불교를 선택하지 말래도 선택할 것"이라며 "세세생생 내 의지처가 될 종교에 대해 잘 알고 몸 · 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가 왜 우수한가?라고 자문한 스님은 "불교는 궁극적 차원의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 무비 스님은 살불살조(殺佛殺祖)를 예로 들어 법문을 이어갔다.

스님은 "임제(臨濟) 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한 것은 살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스승이나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나 그것을 보는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경계를 정해 놓고 여기까지가 '나'라고 고정짓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며 "내 인생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정 자신의 삶을 힘껏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비 스님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되찾는 수행방법도 제시했다.

스님은 "우리가 2700년 전 부처님을 닮아 가려면 '그렇구나'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이해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해야 한다"며 "2700년 전 부처님 말씀과 수많은 경전을 요즘 식으로 가장 쉽게 풀이해 놓으면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선주 기자

3000배 철야정진 모연기금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금 7800만원… 47명에 치료비지원


7월 20일 박태관 군이 입원해 있는 동국대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과 이상벽씨가 박군의 쾌유를 발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모연기금이 환우들에게 회향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에서는 7월 20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난치병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모연기금 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5월 1~2일 '제10회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실시해 모인 780만원의 기금이 47명의 환우들에게(100~400만원)전달된 것. 의료비 전달식에는 상임이사 대오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 이상벽 씨, 동국대일산병원 구병서 한방병원장, 사회사업팀 남미현 실장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박태관(14 · 남) 군을 만나 의료비를 전달하고 쾌유발원 기도를 했다.

박태관 군은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을 앓고 있다. 박 군에게는 4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

대오 스님은 박 군의 팔에 염주를 채워주며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태관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태관이를 위해 기도하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108배 통해 무한에너지 느낀다"

한암사 웰빙 108배 클럽 창단식

"진리의 길을 가는데 가장 방해요인인 자만심을 꺾는데 절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화두인 요즘 108배를 하며 건강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찾는 절을 만들기 위한 클럽이 결성됐다.

불교계 최초 건강 클럽 '웰빙 108배 클럽(회장 김남성)'은 7월 22일 천안 쌍용동 한암사(주지 원철)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 웰빙 108배 클럽은 108배 생활화, 청소년 선도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번 창단식은 환영사, 대회사와 함께 웰빙 108 클럽 창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온 자문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회칙을 통과 시켰다. 행사에는 월철 스님, 한암예술단 차경희 단장, 웰빙 108배 클럽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웰빙108클럽의 회원들이 창단식이 열린 7월 22일 한암사 큰법당에서 백팔대 참회문 DVD동영상을 보며 108배를 하고 있다.

원철 스님은 환영사에서 "종교와 무관한 신행모임이 원만이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차와 침향이 늘 준비돼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 쉬어가라"고 말했다.

웰빙 108배 클럽 김남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108배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이정원 자문위원(한국동서발전 감사)은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주는 한암사를 즐겨 찾는다. 그는 "108배를 통해 부처님을 모시고 건강도 챙기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에 사람을 만나고 겸손함까지 배울 수 있는 이 클럽이 들불처럼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창단식이 끝나고 회원들이 백팔대 참회문DVD동영상을 보며 108배를 실시했다.

조세형 집행위원은 "절은 자신을 무한히 낮춰 아만과 교만을 없애고 순수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동작이다. 108배를 통해 삶의 가치를 알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고 말했다.

웰빙 108배 클럽은 지역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회비는 월 1만원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041)592-4747~8 **박선주 기자**

天雲堂 尙遠大宗師

영결·다비식 봉행에 대한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7월 14일(음 6월 3일) 입적하신 天雲堂 尙遠大宗師의 영결·다비식을 7월 18일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도는 스님의 청정한 수행가풍을 잇고 "중생 속에서 정토를 성취하고 대흥사 교구를 전법과 보살행의 복전으로 가꾸라"는 유훈을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54년 7월 22일

天雲堂 尙遠大宗師 門徒一同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일체가 나와 둘 아님 깨달아야…

대행 스님 법문에서 낙태 해법…고미송 연구원 '문·사·철'에 기고

"일체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고,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해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살생조차도 상대를 건지는 일이 될 수 있다. 낙태하는 여성을 남이라고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뱃속의 태아를 나와 둘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낙태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항상 뜨거운 논쟁거리중 하나인 낙태문제를 대행 스님의 법문을 토대로 불교적으로 성찰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미송 동국대 불교학교육연구단 연구원은 인문학 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 제21 · 22호에 투고한 '낙태문제를 불교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의 주제논문을 통해 낙태에 대한 불교적 담론 속에 숨어있는 가부장적인 윤리의 문제를 드러내 바람직한 불교적 접근법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

고미송 연구원은 한 불교학자가 쓴 <불교적 관점에서 본 낙태문제>에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낙태와 관련해 회자되는 불교적 관점 속에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는 부처님의 진리보다 반대로 더 많은 고통을 양산하는 가부장적인 관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간혹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불교학자가 주장한 내용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에 대해 "글을 쓴 사람이 불교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쓴 학자임을 감안한다면, 불교적 관점 속의 가부장적 관점은 매우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며 식자층이 아닌 불교신자들은 더더욱 진정한 의미의 불교적 관점을 오해하고 있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부장적인 관점에는 약자에게만 강자를 배려하는 윤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미성숙한 사회의 특징이 담겨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성윤리, 비구보다 비구니에게 더 많은 계율을 부여했던 승단의 모습 등이다.

고 연구원은 "자각이 있는 수행자라면, 욕망의 대상이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장애임을 직시한다면, 애써 상대에게 계율을 부과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많은 계율을 부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낙태의 비윤리성을 남성의 경솔하고 무절제한 성의 비윤리성과 연관 짓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만의 바퀴로 수레를 굴러가게 하려는 헛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미송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낙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대행 스님은 시장에서 닭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 공부하기를 원하면서도 무수한 살생으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직업상 그런 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부터 살생이 아니게끔 하는 도리도 있느니라. 따지고 보면 죽는 쪽도 불쌍하고 죽이는 쪽도 불쌍한데 어느 한 쪽만을 지탄할 수 없느니, 그러므로 양쪽을 다 건져야 한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죄라고 자리매김 하면 말이 법이 돼 평생을 무거운 짐에 눌려 지내야 하거든 부처님의 자비스런 가르침이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느냐"고 법문했다.

고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보더라도 낙태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룰 때 살생으로 인해 생기는 악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낙태 여성들에게 업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죄의식과 절망을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다. 죄라는 것을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업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악업이 실체가 아니라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담론을 더 많이 형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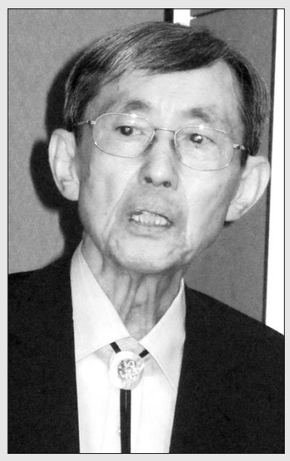
대행 스님의 가르침대로 일체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고,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해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살생조차도 상대를 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고 연구원의 생각이다.

고 연구원은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현실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악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회문제를 대하는 불교적 관점이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우주관 담긴 불교는 현대적

이시우 박사, 아인슈타인 말 빌어 과학종교 불교의 위상 강조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면 그 종교는 오직 맹목적인 신앙이나 믿음을 강요할 뿐이다. 그러나 종교 속에 우주관이 내포되면 과학적 탐구의 강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관측천문학의 대가 이시우 박사(74 · 前 서울대 천문학과 명예교수 · 사진)는 7월 15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열린논단에서 '천문학자가 본 불교 우주관'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뜻을 같이해 "불교는 과학적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의 첨단우주과학시대에 과학적 동기를 부여해 만물의 존재가치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합당한 종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시우 박사는 부처님의 인생관과 과학적 동기를 부여하는 그의 우주관을 살폈다.

#연기적 생주이멸

별은 가스와 티끌에서 평생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갖고 태어나 일생을 지내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삼독(탐 · 진 · 치)과 사상(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없다. 따라서 청정한 일생을 지낸다.

별은 살아가면서 노년기로 접어들면 불안정해지면서 물질을 바깥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방출된 물질은 다른 별들에서 나온 것과 서로 합쳐져 거대한 성운을 형성하며, 이로부터 다음 세대별이 탄생한다. 따라서 별에는 인간처럼 일정한 가문의 계보를 가지는 족보가 없다.

이시우 박사는 "만물은 음식에서 나와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면서 만물이 만물을 양육한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생의(生意)를 지닌 생명체로서 연기적 공존공생과 생명평등성에 따라 생주이멸의 순환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것은 불법의 근본사상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물심연기법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물적, 심적 연기적 수수관계로 서로 얽혀있다. 우주 만물의 상호의존적인 연기의 원리는 존재의 원리이다.

<금강경>의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에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란 고정된 법도 없고 또한 여래가 설한 바의 법도 없다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제외하면,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시우 박사는 "이 뜻은 결국 우주에서는 어떠한 고정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공을 설한 것"이라며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연기 작용으로 각 구성원의 초기 특성이 소멸되면 개체의 정체성 소멸로 자타의 분별이 없는 자타불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계층적 집단 형성

성간 물질에서 성단이 탄생되고, 성단들이 모여 은하를,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을, 은하단들이 모여 초은하단을, 초은하단들이 모여 초초은하단을 이루며 우주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시우 박사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인드라망이다"며 "이처럼 연기적 세계에서는 작은 집단들이 모여 더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집단의 구속력과 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연기적 성주괴공

우주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첫째 전일적 우주는 신화적이며 종교적인 형이상학적 우주로서 비물리적 우주다. 둘째 물리적 우주는 물리법칙과 수학으로 기술되는 우주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대폭발 우주, 진동우주, 정상우주, 정적 구면(球面)우주 등이 있다. 특히 대폭발 우주는 허블(1929)에 의한 은하의 후퇴법칙 발견과 가모프(1948)의 이론적인 대폭발 모형으로 설명된다. 셋째 관측 가능한 우주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인식되는 범위의 우주다. 현재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광속 이상이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으므로 관측적 한계를 갖게 된다. 붓다는 경에서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운동을 반복한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진동 우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붓다의 우주에서는 우주의 수축 팽창 운동 자체보다는 우주가 정적 상태가 아니라 동적 상태임을 강조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의 육상원융

집단에서 각 구성원은 연기관계를 거치면서 각자의 특성에 알맞은 자리에서 알맞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존재가치를 지니는 안정된 이완계를 이룬다. 이때 그 집단의 구성 요소인 육상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며 결합될 때 그 집단은 연기적으로 안정된 육상원융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만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신이 있을 자리에 존재하게 된다. 성단이나 은하에서 무거운 별들은 집단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가벼운 별들은 주로 외곽에 분포한다. 그리고 성단이 외부 집단의 큰 중력적 섭동으로 충격을 받아 가벼운 별들이 성단을 이탈하면 성단 전체가 수축하면서 구속력을 증가시켜 더 이상 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별들의 세계도 육상원융이 만족되도록 진화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응용불교 주제 논문 모집

東大 경주 불문硏 '불교문화연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성철)은 11월 30일 발간 예정인 <불교문화연구> 제11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는 응용불교를 주제로 투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기존에 출간됐던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리지 않은 독창적 논문이어야 한다.

석사학위 이상 또는 출가 승려가 투고한 논문만 받으며 주제는 불교와 인접학문, 사회현상을 접목시킨 응용불교논문을 권장하나, 응용불교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순수불교학(불교사상, 불교역사)논문도 투고 가능하다.

투고된 응용불교논문가운데 7편의 논문을 엄선해 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원고는 주석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분량을 제한하며 9월 30일까지 이메일(bulmunyeon@dongguk.ac.kr)로 논문을 송부한 후 전화로 통지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원고작성요령 및 심사규정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bulsamu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54)770-2506 이나은 기자

진각논문대상 김수연씨 등 수상

4개월 후 완성된 논문 중 최우수편 가려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7월 22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교육원장실에서 제12회 진각논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불교일반문야에는 △최성규(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진각논문대상을 만들게 된 목적은 불교발전과 밀교학자 및 불교학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불교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진각논문대상은 심사위원장인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지정 정사와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개별심사 및 심사위원단 회의를 거쳐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향후 4개월 간 논문 완성기간을 거쳐 11월 중순 최종 논문발표회를 갖고 최우수편을 가리게 된다. 상금은 최우수 1편에 500만원, 그 외 일반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나은 기자

국립경주博 초 · 중등교원연수

경주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7월 26~30일 초 ·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국립경주박물관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원연수는 현직교원들이 신라문화를 익혀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9일에는 임영애 경주대학교 교수의 '신라 절 및 불교문화재' 강연 등 신라불교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4)740-7536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의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싸움이 잦으셨고 집안은 항상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마음 기댈 곳 없이 자라왔습니다. 유년 시절은 항상 알 수 없는 우울함과 두려움, 분노로 보냈습니다. 급기야 제가 16세에는 몇 차례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자살시도에 실패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과거의 일들이 다시 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과거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젠 두렵습니다. 2~3년 전부터는 상담과 심리치유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고, 치료도 받아 지금은 약물의 도움 없이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들이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자살시도 경험이 불현듯 치밀어 올라요
담담히 감정 기복 받아들이면 헤쳐나갈 힘 생겨요

A 유년 시절을 우울하고 분노와 두려운 감정으로 보내셨다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을 맘껏 표현하며 어리광과 투정도 부리면서 자라야 할 시기인데 안타깝습니다. 아동기 시절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정서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경우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하고 두렵고 분노하는 감정들이 생긴 것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스스로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 걸로 보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걸로 보여 집니다. 아픈 기억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있기 보다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충족되지 않았던 사랑을 이성이나 혹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랑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점차 사라지며, 아팠던 경험은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 해도 담담히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은 잠시 왔다가 사라질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은 더 권해드리자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권합니다. 부처님 법을 등불 삼아 기도를 하면 자신을 맑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더라고 다시 헤쳐 나갈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Q 불교가 염세적인 종교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불교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치신 분이며 그 진리의 내용은 연기로 인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어 서로 의존하며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은 현상관계뿐 아니라 인생의 실상도 바르게 깨닫게 해줘 나와 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인간과 자연계의 공생관계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불교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 사상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의 공(空) 사상이 핵심 교리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습니다. 운명론 같기도 하지만 선업과 악업에 따라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자신을 구속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사상은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허공처럼 열면 그 빈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넓어지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염세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업과 인과, 공과 마음을 모든 일에 체념한 소극적인 사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특징은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일에 집착을 갖지 않으며, 실천을 강조하고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출발은 늦었어도 꼭 필요한 일 해요

자비법당 탐방
여수노인복지관



진옥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배식을 하고 있다.

실무자 모두 '이 뭣고' 화두 들며 마음으로 사업하겠다 원력
미용 · 보건 · 물리치료 · 문화공연 '사랑 실은 이동복지관' 인기

'이 뭣고'는 여수노인복지관(관장 신미경, 이하 복지관) 실무자들의 화두이다.

신미경 복지관장은 "진옥 스님에게서 받은 이 화두를 통해 돈보다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관장의 이 말에 왠지 자랑스러움이 묻어난다.

현재 여수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행정' 프로그램은 타 복지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여수노인복지관이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우리동네 희망도서관 꿈 이룸' 프로그램은 세대 간 갈등 극복과 문화의 공존을 위해 마련됐다.

여수 화장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에는 현재 5000여 권의 장서가 보관돼 있다. 특히 이곳에는 아이들과 일반인을 위한 불교도서도 비치돼 있어, 지역 불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비록 40여 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매일 50~60여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신미경 관장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노인과 부모,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길 따라 물길 찾아 사랑 실은 이동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여수노인복지관이 가장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중앙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 받아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미용, 보건, 물리치료, 문화공연을 각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제공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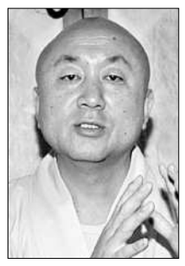
신 관장은 "버스가 마을에 도착하는 날은 잔칫날이 따로 없다. 하루 평균 60여 마을주민들이 버스에서 머리손질부터 마사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진행하는 공연을 즐긴다. 워낙 인기가 좋아 해당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관은 무의탁 노인과 결식 어른들을 위한 점심제공 및 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신미경 관장은 "다른데 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넓은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더욱 많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보문복지회 진옥 스님
"어려운 이 찾아가는 불교 돼야 해요"



복지는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다. 행복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불교적 사회복지로 정토의 세계를 일구는 리더가 있다.

여수 보문복지회의 진옥 스님은 보문복지회를 통해 지역에서 12개 단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걸쳐 불교복지포교를 실천해 왔다.

보문복지회는 여수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단체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도도 높다.

진옥 스님은 "1984년 여수에 왔을 때 지역사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쭉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런 고민 끝에 1994년 지역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후 16년이 지난 지금은 여수에서 알아주는 사회복지의 리더가 됐다.

"당시 여수에는 변변한 사찰이나 불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활동도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찰현황파악과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25년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경전공부를 실시했다. 스님은 "경전공부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불교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12년 간 환경운동연합 대표로 활동하며 만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점차 복지의 뜻을 펼쳐나갔다.

"요즘 절들은 너무 보시가 강조되면서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불교는 점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불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종교가 돼야 합니다."

스님은 현재 노인복지관련 사업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과정을 돕는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가정이 파괴된 청소년들과 부모가 없고 방치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다.

스님은 "대승불교란 결국 함께 이루는 정토이다"라며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사찰은 지역을 정토로 만드는 에너지"라고 밝혔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문수 스님 기억하겠습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가 7월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됐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도 1만여 사부대중은 꼿꼿이 자리를 지키며 문수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생명살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
스님이 던진 화두 타파할 그 날까지 정진

“문수 스님! 본래의 자리였던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생명평화의 염원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장맛비가 한창인 여름밤, 폭포수 같은 빗소리를 잠재우는 1만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 퍼졌다. 광장 한켠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는 비구니스님, 원불교 교무와 수녀가 “뭇 생명을 위해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잊지 않겠다”고, “스님이 남긴 4대강 사업 중단과 부패척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유지를 받들겠다”고 서원의 약속을 읽어 내려갔다.

불교, 원불교, 가톨릭 여성성직자 모임인 삼소회(三笑會)가 근엄한 ‘서원의 약속’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눈빛도 빛났다.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속에 ‘문수 스님 기억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 ‘강의 우리의 생명’ 등 손피켓을 든 손은 하늘로 향해 있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뭇생명의 삶이 처절해진 것처럼, 쏟아지는 장대비도 아랑곳없이 꼿꼿이 자리를 지키며 문수 스님을 그리는 사부대중의 몸과 마음도 처절했다.

소복(素服)처럼 사부대중이 차려 입은 하얀 우비는 문수 스님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맑고 깨끗한 한 마음의 징표였다. 무대에서 흥겨운 노래가락으로, 낭랑한 목소리로 울려 퍼진 소리는 문수 스님의 문수 보살되심을 환희봉행 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혜경 · 수경 · 도법 · 김동건)는 7월 17일 오후 7~11시 ‘온 생명을 위한 한 생명의 노래’를 주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삼소회 성직자들이 ‘서원의 약속’을 낭독하고 있다.

행사는 문수 스님의 도반대표 각운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의 서원의 북으로 시작됐다. 이어 추모묵념, 동환 스님의 천도의식, 박재동 화백의 그림퍼포먼스,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추모공연, 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종단 대표로 추모사를 했다. 김선우 시인은 추모시 낭송을,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와 조해붕 천주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가 이웃종교와 시민단체 대표로 추모사를 했다.

혜총 스님은 추모사에서 “4대강 공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함께 성찰하고 의견을 모을 때이다. 뭇생명을 위해서, 우리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실천할 때”라며 “문수 스님의 49재를 맞아 우리 사회가 생명존중과 상생 공영의 대의 속에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갈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환 스님의 천도의식에서는 MB정부를 질책하는 개사된 회심곡이 불려져 눈길을 끌었다.

“(전략)…문수스님 사십구재/소신공양 큰 뜻 이어/4대강을 지켜내고/극락왕생 빌고 빌며/중단 중단 당장 중단/지금 아직 늦잖으니/땅을 치고 후회 전에/4대강의 삽질부터/중지 중지 즉각 폐기/국민들께 무릎 꿇고/소통불통 독불장군/국민심판 받지 않게/대대손손 역리역천/손가락질 받지 않게/기도하고 기도하여/한반도라 금수강산/민족 젖줄 4대강을/후손에게 물려주세/극락왕생 빌고 빌며/문수 스님 큰 뜻 이어/당당하게 물려주세.”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서울 한강선원장 지관 스님, 문수 스님 도반대표 각운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대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 중앙신도회 손안식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웅정 대표 등 50여 사찰 100여 단체에서 500여 스님,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인을 비롯해 한명숙 前 국무총리, 정세균 민주당 대표,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문수 스님의 49재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뭇생명과 문수 스님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사부대중의 눈시울처럼 조계사 도량 마당도 새벽녘까지 내렸던 비에 젖어 있었다.

스님의 49재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불교단체 관계자, 불자를 비롯해 수녀 등 이웃종교인도 함께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문수 스님은 소신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함께 지니고 실천에 옮긴 대보살로 거듭났다”며 스님의 뜻을 기렸다.

이어 자승 스님은 “스님은 우리에게 ‘생명살림’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큰 화두를 전했다”며 “스님이 보여준 대자비는 관음행자가 돼 뭇생명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삼게 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보현행자가 돼 우리 종단 사부대중은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도 재가자를 대표해 “문수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관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합창단의 추모가가 사부대중의 가슴을 울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청와대 청불회 회장 박재완 수석 등의 헌화가 뒤를 이었다.

문수 스님 잊지 않겠습니다. 극락왕생하소서.

글=조동섭 · 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노년생활 교육 고창노인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7월 21일 복지관에서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주제로 노인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 했다. 어르신들은 노년의 성, 의사소통,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행복한 노년생활' 교육도 참관했다.

복지관은 부대행사로 고창보건소 · 정신보건센터 연계를 통한 '노인건강생활실천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에게 영양, 절주, 금연, 정신건강, 구강 및 만성질환 등의 다양한 정보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도완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창지역 어르신들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250인 금강경 수기대법회

1250인 금강경 수기대법회가 7월 16일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봉행됐다.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이날 입제 법회에서 통광 스님(칠불암 회주)은 입제법문에 앞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참된 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 금강경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를 마칠 때 쯤이면 부처님의 맑고 청정함을 본받아 모두가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7월 30일~9월 10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무비 스님(前 동국역경원장), 용학 스님(범어사승가대학 학장), 설우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홍선 스님(전 중앙승가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지환 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 상현 스님(범어사승가대학 학감)등의 금강경 강좌가 이어진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송전탑 건설로 수행환경 위협

남원 승련사 뒷산 설치 예정… 진정 위한 서명운동 시작



송전탑이 설치될 승련사 뒷산. 수행공간과 불과 200m 떨어져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 위봉사와 더불어 2곳 뿐인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 수행도량인 남원 승련사(주지 경휜) 뒷산으로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수행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전주사업소에서 발주한 송전 계획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이백면 송정소에서 전북 장수군에 이르는 30㎞ 구간에 15만 4000볼트 고압선을 설치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이 승련사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송전로가 개설될 예정인 구간에는 승련사 뿐만 아니라 귀정사가 있는데, 이 두 사찰 인근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송전선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전법'등 관련 법규의 검토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승련사 주지 경휜 스님은 "뒷산으로 포행을 나갔다 이상한 표식이 있어 한전 전주사업소로 찾아가 노선 변경의 불가피함을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승련사를 중심으로 남원사암연합회, 남원 신행단체 연합회, 마을주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전선 철탑이 세워질 예정인 만행산은 지난 1996년 4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승련사 주변을 제외한 산림이 황폐화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만행산에는 계곡으로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심각한 식수 고갈문제로 현재도 계곡의 물을 끌어올려 식수를 해결하고 갈수기에는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철탑건설이 착수된다면, 식수문제와 산림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휜 스님은 "산불화재로 황폐화된 곳을 놓아두고 화재로부터 겨우 살아남은 승련사 주변의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승련사 뒷산으로 고압선로를 개설하려는 한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절 바로 뒤에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정작 승련사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승련사는 선학원 소속으로 백두대간을 마주하고 있는 남원의 종조산인 만행산 자락에 위치해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런 추모제 되풀이 되지 말아야"

문수스님 49재 봉행 추모물결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이 7월 17일 열린 '소신공양 문수 스님 시민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소신공양으로 생명의 등불을 밝힌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물결이 전국에 이어졌다.

소신공양 문수 스님 49재 추모제가 열린 광주에서 참가자들은 "홍수문제는 영산강 본류가 아닌 지천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강바닥을 들어내고 보를 만들고 있다"며 "흐르는 물길을 가로막는 댐을 만들고, 강바닥을 수미터 굴착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강을 인공호수로 만드는 사업이 바로 MB식 영산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문수스님유지실천위원회와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도민행동(대표 임낙평)은 7월 17일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 '소신공양 문수스님 시도민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법선 스님,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 김병균 목사, 임낙평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200여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이 남긴 말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현지 스님은 추모사에서 "4대강과 가난한 자들을 대변한 문수 스님을 보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문수 스님의 뜻을 이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7월 17일 부산 서면 태화백화점 일대에서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 부산시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추모제에는 부산시민 400여 명이 동참했다. 문수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와 시민추모문화제를 비롯해 서명운동, 사진전, 도서전, 모금운동 등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하재훈 회장은 "다시는 이런 추모제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남원 선원사 '자장면 스님' 운천 스님

모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지리산과 만행산, 교룡산 등 명산이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성춘향의 고장 전라북도 남원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선원사. 전북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경남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한 남원의 중심에서 전법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을 찾았다.

선원사에 부임한지 1년 정도 지난 운천 스님은 파계사 율원과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중국의 장강사범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자장면 스님으로 더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

운천 스님은 남원지역에서 '자장면 스님'으로 더욱 유명하다. 스님의 법명은 모르더라도 자장면 스님하면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운천 스님이 자장면 스님으로 불리게 된 것은 현재 선원사 자원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인순 거사를 만나면서부터다.

운천 스님은 태안 기름제거 작업 봉사자들에게 자장면 보시를 했던 최인순 거사와 신도들과 함께 선원사 자원봉사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스님이 직접 면 뽑는 기계를 구입해 안거 기간 매주 수요일 마다 화엄사, 범어사, 쌍계사, 칠불선원, 해인사, 통도사 등 전국의 총림, 강원, 선원을 찾아 스님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대중공양을 올렸다.

운천 스님은 선원사에 부임하고 요사채인 용화전을 일부 개조해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급식은 일반 경로식당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스님이 직접 만들어 주는 자장면 만큼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중의 하나가 됐다.

스님은 틈틈이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자장면을 공양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중 · 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운천 스님은 "매년 일정금액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 계획"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운천 스님은 군장병들에게도 자장면을 보시해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매월 셋째 일요일마다 임실 제6탄약창 군법당 호국장영사를 찾아 자장면을 보시하던 스님은 2009년 겨울, 열악한 난방시설로 추운 환경에서 법회를 보는 장병들을 위해 50평 법당에 전기 판넬을 설치해 주기도 했다.

선원 사내에 복지관 설립을 서원했던 운천 스님은 현재 남원시에 복지관 설립 허가요청을 낸 상태다.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주 · 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천운 스님이 꾸준한 자원봉사를 하고 복지관 설립을 서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돼지감자차' '뚱딴지 차'로 불리는 국우차를 판매하면서 부터다.

스님은 올해 처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 직접 자생 돼지감자를 캐, 씻고 썰고 말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 봉사의 참 맛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미 전국의 선원과 일부 사찰에 돼지감자차를 보시했다는 스님은 "많은 스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불자들이 건강도 돌보고 어려운 이웃도 간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선원사 돼지감자 차를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063)631-0108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공과 건강을 돌려주는 우주의 대기운!

빙의치유의 정석



선화도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가를 구원하고 병을 치유하시고 고통을 덜어주고 악함을 없애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사람처럼 올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실제 선화님을 영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화도는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그려진 적이 없으며 세계최초로 우리 인간 세상에 그림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화도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며 대우주를 관장하는 천상의 세계에서 오신 실존 인물입니다.
선화도를 한분 그릴 때마다 대우주를 관장하는 곳에서 선화님들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선화도는 배워서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고 절대능력을 받아서 그려지는 신비한 그림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며 가족에게는 화목을 주는 동시에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헤아리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소원을 들어주시며 액운을 막아주며 우환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선화도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지며 10초면 그려집니다.
선화도가 다르게 그려지는 이유는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선화님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화님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 이념을 초월 선의 힘으로 하나되게 하여 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선화도를 소장한 분들이 체험한 사례들

◇몸에서 열기를 느낀다. ◇눈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 ◇사업이 번창해졌다.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평소 불안한것이 사라졌다. ◇액운이 막아졌다. ◇가정불화가 사라졌다.
◇마음이 편해지며 기분이 좋다.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늘상 웃음이 넘쳐난다. ◇때로는 환희심이 일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들꽃이나 박하 향기, 은은향 향내를 맡았다.
◇선화도를 보고 슬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몸과 마음을 씻어준다.
◇되는 일이 없었는데 선화도를 소장하고부터 일이 잘풀렸다.
◇선화도에서 방출되는 대우주의기를 받아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았다.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학생, 가정주부, 사업가, 군인, 연예인, 교포 등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아따도 외로워도 혼자만이 감수하던빙의 치료와 구원의 결정판!
빙의시대에 등불이 되어줄 명쾌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선화도를 통하여 대우주의기를 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기 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을 포기한 이시대의 냉가슴을 후련하게 달래주는 성공치유의 선화도와 빙의진단요령, 성공을 이끄는 우주의 대 기운!

이책은 오랜동안 빙의,우울증,신병,병명이 나타나지 않는분,불치병등 고질병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전에 찾아온 연구소에서 실지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서술한 생생한 체험기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 금강굴 안의 촛대 4개 모두에서 촛불서광을 받은후 20년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된다.
37세에 드디어 받은 대우주의 기로 인해 하늘문이 열려 신비의 나라와 소통하게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운명의 이정표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금메달을 향하는 선수에게 모진 훈련이 기다리듯 저자 역시 무지 힘든 역경과 시련의 시험대에서 대우주의 기운과 선화도의 대기운을 아픈이 들에게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나누어 주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라는 대우주의 기운으로 온세상을 아름답게 다듬고자 불철주야 애써온 저자의 변함없는 진실함을 기다리다 기적같은 환희를 체험한 회원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못이겨 드디어 책을 저술하게 된 저자는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 "진실의 힘"을 많이 접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 5장으로 나누어진 본서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흔히 잘모르지만 실생활에는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저술되어 있으며 골만 잘 집어넣는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면 왜 골을 잘 집어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골도 잘넣고, 골이 잘 넣어지면 주변동료들과팬들과도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정돈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물질문명만 앞서고 정신 문명이 핍박해 질수록 늘어만 가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한줄기 등대불같은 이 책이야말로 빙의분야에 새로운 정석으로 다가가는 최상의 필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2010년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되었다.

책 주문 : 전화 02-562-1880, 교보문고 1544-1900 우주의기 연구소 043)237-7588 www.spaceri.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57번지 죽암빌딩 201호 선화도 문의 043)237-7588

조계의 법통이 한반도에 이르니 아홉 산에 법향 드높아



㊳ 조계정맥 전수도량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과 비는 장흥 보림사 경내에서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키고 있다.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寶林寺)는 한반도로 전해진 조계의 선맥이 웅비(雄飛)한 도량입니다. 잘 알다시피 도의(道義 ?~?) 국사는 당(唐)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3) 선사로부터 선의 정맥(正脈)을 받아 온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입니다. 그의 시대는 교학의 견고한 이념이 지배한 때라 선법을 펼칠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의 국사는 설악산 동쪽 계곡 진전사에서 40년을 칩거 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낯설지 않은 것은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 양무제를 만났으나 인연이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숭산에 들어가 칩거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의 국사를 한국의 달마라고 칭합니다.

도의 국사의 법을 이은 제자는 염거(廉居 ?~844) 선사이고 다시 그의 제자 보보체징(普照體澄 804~880) 선사가 법을 이어 가지산 보림사를 창건해 구산선문의 일파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 절의 이름은 가지산사(迦智山寺)였는데 체징 선사 입적 후 헌강왕이 시호와 탑호를 내리면서 절 이름도 보림사라는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왕이 존경하던 국사나 왕사 등 큰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며 탑호와 시호를 내리고 그 유지가 후세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흔하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머물던 절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보림사라는 이름은 부처님에서 가섭으로, 가섭에서 서천(西天) 28조 달마로 다시 중국에서 달마를 초조로 하여 제6조 혜능으로 면면히 상승되어 온 선의 정맥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혜능 대사가 머물며 법을 펼친 곳이 바로 광동 조계산 보림사였던 것입니다. 조계종이라는 이름도,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를 품은 그 조계산의 이름도 모두 6조로부터 전승되어 온 선맥이 우리 산하에 흐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두에 '보림사(寶林寺)는 한반도로 전해진 조계의 선맥이 웅비(雄飛)한 도량'이라고 표현한 것도 6조의 맥을 이은 마조의 제자 서당지장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은 도의 국사의 법을 이는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보림사라는 이름의 권위(?)는 인도와 중국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이은 사찰의 이름으로 존재해 있다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가지산문의 보림사가 조계선의 맥을 이은 도량이라고 하여 다른 산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산선문을 개창한 선사들은 모두 6조 혜능의 선법을 전해 받은 걸승들이었습니다. 입당구법(入唐求法) 후 귀국하여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산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홉 산에 각자의 선법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시절이 선불교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까지 거의 100여 년을 두고 구산선문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전법의 계보를 놓고 볼 때 가지산문이 조계선맥을 이은 적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산선문의 시초는 남원 실상사 즉 실상산문입니다. 도의 국사가 설악의 진전사에서 칩거하는 동안 당에서 귀국한 홍척(洪陟) 선사가 실상산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본 연재 제7회 참조) 여기서 구산선문이 열리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선문을 연 개산조가 언제 귀국했는가를 짚어 봄으로써 각각의 선문이 열린 순서를 짐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계의 선맥을 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100여 년을 두고 열린 구산선문이고 보면 개산 순서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황을 살펴봅니다.

가지산문의 개산조인 도의 국사는 821년에 귀국하지만 40년간 칩거를 하고 그의 법손 체징 선사는 840년에 귀국합니다. 실상산문을 연 홍척 선사는 826년에 귀국했고, 봉림산문을 연 현욱(玄昱) 선사는 837년에 귀국하여 제자 심희(審希)가 창원에 봉림사를 세워 봉림산파를 이루었습니다. 현욱은 귀국하여 처음에는 실상사에 머물렀고 뒤에 혜목산 고달사에서 법을 폈습니다. 곡성 태안사 동리산문의 개산조 혜철(惠哲) 선사는 839년부터 태안사에서 선지를 편 것으로 전합니다. 사자산문의 개산조 도윤(道允) 선사는 혜능의 법을 이은 남전보원(南泉普願)으로부터 인가받고 귀국해 쌍봉사에 머물렀고 그의 제자 징효절중(澄曉折中)이 지금의 법흥사인 흥령사를 세워 사자산문을 열었습니다. 징효절중은 831년에 태어나 895년에 입적했습니다. 성주산문을 연 무염(無染) 선사는 도의 국사가 귀국하던 821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사굴산문의 법일(梵日) 선사는 847년에 귀국했습니다. 수미산문의 이엄(利嚴) 선사의 귀국은 911년의 일이고 희양산문의 개산조 경양(競讓) 선사는 고려 태조 7년인 924년에 귀국했습니다.

도의 국사의 법손 체징 가지산문 열어… '창성탑' 건재

왕이 내려 준 절 이름 '보림사' 정통 선맥의 도량 상징

이렇게 볼 때 구산선문은 입당구법승들이 귀국하여 각자의 인연지에서 산문을 열어 선법을 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림사는 조계 정맥의 선림(禪林)답게 정갈하고 고즈넉합니다. 왕방울 눈을 부라리는 금강역사와 사천왕이 버티고 앉은 사천문을 들어서 단아한 삼층석탑에 배례하고 대적광전에 들어가 체징 선사의 시절에 철로 조성된 비로자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대웅보전을 거쳐 조사전에 들어가면 해동초조 도의 국사와 제2조 염거 선사 그리고 제3조 체징 선사의 영정을 뵐 수 있습니다. 체징 선사의 영정에는 '개산조보조선사진영(開山祖普照禪師眞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웅보전 오른쪽 뒤편에 보초체징 선사의 부도 창성탑(彰聖塔 보물 제157호)과 탑비(보물 제158호)가 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부도를 친견하러 갑니다. 군데군데 훼손이 되긴 했지만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몸매를 지탱해 온 창성탑은 팔각원당형이며 화려하지 않게 절제미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스승 염거 선사의 부도는 우리나라 팔각원당형 부도의 시원(始原)이고 다시 그 스승의 부도는 탑에서 부도의 형태가 파생하는 과도기적인 조형(진전사 부도)이니 이 창성탑은 팔각원당형 부도의 초기 양식으로서의 한 모범이겠습니다. 체징 선사가 입적하고 4년 뒤(884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 4.1m.

팔각 지대석 위에 상중하대석을 올렸는데 하대석과 중대석의 사이에 구름문양을 강조한 괴대를 따로 올려 웅장한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듬직한 스승을 만나는 느낌을 주는 창성탑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시작되는 장맛비에 몸을 맡깁니다. 그 탑이 세워진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배례하고 스승의 법향을 느끼려 했을까를 생각하면 잠시 비를 맞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창성탑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선불교의 발원수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을 듯합니다. 부디 장흥 보림사 갈 기회가 있다면 구산선문과 체징 선사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고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창성탑비는 빗줄기에 몸을 내 놓고 있지만, 어디 이런 비 한 두 번 맞은 줄 아느냐는 듯 묵직하게 그 수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金穎)이 찬한 비문에 의하면 체징 선사도 당시의 선사들과 지식계층이 그랬던 것처럼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국내의 스승보다 뛰어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비문에는 그 정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잇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15주를 편력하면서 온 누리가 좋아하고 하고자 함이 같으며 성상(性相)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이에 '우리 조사께서 말씀하신 바에 더할 것이 없는데 어찌 수고로이 멀리 가겠는가' 라고 이르며 발길을 멈추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슨 소식일까요? 당나라에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없었다는 말이라면 체징 선사의 교만이 드러난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이미 도의 국사로부터 정맥을 이은 염거화상의 제자의 눈에 조계선법을 뛰어넘을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아 당나라에 있으나 신라에 있으나 한 맛의 법을 누린다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비문에는 도의 국사가 서당 선사에게 심인을 전수받고 귀국하여 전법의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 달마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음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또 "달마는 당나라의 제1조이며, 우리 신라에서는 도의대사가 제1조, 염거선사가 제2조, 우리 보조 체징선사가 제3조이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조 비로자나부처님이 조성된 경위도 기록되어 있으니 창성탑비문의 내용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대로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후반부에는 가지산사가 체징 선사에 의해 창건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원표대덕(元表大德)이 거처하던 곳이며 장생표(長生標)가 서 있다는 것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생표는 보림사에 1000년 넘도록 서 있다가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니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보림사를 나와 주차장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동부도밭이 보입니다. 동부도밭의 제일 윗단에는 '보림사동부도'(보물 제155호)란 이름의 팔각원당형 부도가 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의 양식이며 그 주인은 체징 선사의 시대를 함께 살다간 고승일 것 같지만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래로 6기의 부도가 좌선에 든 채 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고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주차장을 나와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영암 방향으로 600m 가량 가다가 아래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언덕위에 서 있는 두 기의 부도가 보입니다. 보림사 서부도밭입니다. 여기도 '보림사서부도'(보물 제156호)라는 이름의 팔각원당형 부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역시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부도전(浮屠殿)으로 보이는 건물의 뒤편 둔덕 위에 다소 훼손이 되었지만 그 전체적인 몸매는 훤칠하여 보기 좋은 부도 한 기가 서 있습니다.



보림사동부도

해 저물 녘, 산을 타고 오르는 운무를 배경으로 먼데 간 아들을 기다리는 자세로 서 있는 부도를 바라봅니다. 구산선문의 시대를 살다간 고승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어강육 교수의 체질개선 혁둑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정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말할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통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물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된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5>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라

스님이 문하대중에게 설법했다.
"'도(道)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벌써 간택한 것이기도 하고, 명백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승은 도는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자네들은 도리어 그 것(道)을 아끼고 보호하려 하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중요시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몰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이미 모른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질문은 그것으로 됐어. 예배하고 물러가라."

師示衆云 至道無難 唯嫌揀擇 纔有言語 是揀擇 是明白 老僧卻不在明白裡 是你還護惜也無
問和尙旣不在明白裡 又護惜箇什麽 師云 我亦不知
學云 和尙旣不知 爲什麽道不 在明白裡
師云 問事卽得 禮拜了退

도(道)에 들어가려면 우선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간택은 대개 양변을 간택한다. 선과 악, 부처와 중생, 잘난 자와 못난 자, 부와 가난, 좋은 것과 싫은 것 등의 양변의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 양변을 선택하는 마음을 끊지 못한다면 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나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도(道)는 너무 명백하다. 도는 없는 곳이 없고 도가 나타나지 않는 곳도 없다. 그러나 도가 명백하지만 도를 선명하게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도는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도가 명백한 곳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시 하는 것은 없다. 조주 스님은 다만 학인들이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갖다 버리라고 가르칠 뿐이다. 조주 스님은 도를 모르지만 도를 보여주고 일러주는 것을 능숙하게 한다. 따라서 조주의 '모름' 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해서는 안 된다.

선사를 압도하는 방법은 2~3단계 높은 것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의 '모른다' 는 말끝에 무슨 말을 해야 조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궁리해 보길 바란다.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스님의 연패(戀佩)를 좋아하지 않습니다"하고 말할 것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서 설법했다.
"'법은 본래 불생(不生)이며, 지금도 무멸(無滅)이다. 따라서 생이라고 말하거나 멸이라고도 말하지 말라' 라는 따위의 말도 필요 없다. 여러분은 자, 생각해보라. 불생불멸의 도리가 어떠한가?"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벌써 불생불멸의 도리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자는 그저 하나의 죽은 말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군."

師示衆云 法本不生 今卽無滅 更不要道 纔語是生
不語是滅 諸人且作麽生 是不生不滅底道理
問 早是不生不滅
師云 者漢只認得箇死語

본래 생이 없기 때문에 멸도 없다는 것이 불생불멸의 뜻이다. 불생불멸 이 한 글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 한번 진리에 눈이 뜨이면 일평생 편안해짐을 얻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조주 스님 역시 불생불멸의 뜻을 설명해주면서 참다운 불생불멸은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중들에게 "그대들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학승이 "스님께서 이제껏 설명하신 것이 곧 불생불멸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반문성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실을 표현한다면 도는 결국 말장난 밖에 되지 않는다. 도를 찾는 자들은 항상 진솔하게, 그리고 보다 입체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전 선사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그런 예인데, 다만 죽은 말을 외우고 다녀서는 남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납자들이여, 어떻게 해야 불생불멸의 도리를 제대로 이르는 것이 되겠는가? 한 번 궁리해 볼 일이다. 만일 이 납자에게 누가 묻는다면 "창천(蒼天), 창천(蒼天)!"하고 이르겠다.

학승이 물었다.
"'도(道)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한다면 벌써 간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찌하여 옛 사람의 말을 전부 인용하지 않는가?"
학인이 말했다.
"저는 다만 그 말 그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이야."

問 至道無難唯嫌揀擇 纔有言語是揀擇 和尙如何示人
師云 何不盡引古人語
學云 某甲只道得到這裡
師云 只這至道無難唯嫌揀擇

사람의 선택들은 모두 부질없는 것
중요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평생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선택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명예, 욕망, 분노, 사랑 등은 모두 사람들이 세워놓은 허망한 가치들이다. 그 허망한 가치를 쫓아 일평생 살아가고 있으니 인생이 한편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생이 꿈속의 삶이라 행위는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낫다, 못하다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道)는 정신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되던 그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평생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도이다. 그중에 승찬 스님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간택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간택이 되니 그런 말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선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까. 이 또한 학인들의 궁금증이 될 만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조주 스님은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이라는 말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진실이나 사랑 같은 것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말의 힘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랑을 판별할 수 있듯이, 도를 얻은 자도 선배 도학자(道學者)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❻ 절관론

도리는 무심에 근거해야 한다

도신의 가르침은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7)의 계통으로 분립돼 소위 우두종(牛頭宗)이 출현했다. 우두종은 <절관론(絶觀論)>의 저자로 간주되는 우두산의 법융이, 제4조 도신(580~651)의 법을 받은 이후에 법융(法融)-지엄(智嚴)-혜방(慧方)-법지(法持)-지위(智威)-혜충(慧忠) 및 현소(玄素) 등으로 계보를 형성했다. 이것은 달마계통의 선종이 제5조의 홍인(601~674) 이후에 신수 계통의 북종과 혜능 계통의 남종으로 분립되기 이전에 해당한다.

우두종의 전승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이화(李華)의 <윤주학림사고경산대사비명(潤州鶴林寺故徑山大師碑銘)>이다. 이에 의하면 달마 대사의 선법이 이후 삼전(三傳)해 도신 대사에 이르렀다. 도신의 문인으로 융(融) 대사가 있는데, 혜충에 이르기까지 육전(六傳)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두종의 제6조에 해당하는 학림현소(鶴林玄素, 666~752)의 <비명>에 기초해 <원각경대소초> <조당집>을 비롯해 <종경록>과 <경덕전등록> 등에도 달마선의 분파로서 우두종의 전등 사실이 기록돼 있다.



죽림정사의 달마대사 진영. (현대불교자료)

우두종의 선풍은 우두 법융의 <절관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절관론>은 <입리연문론(入理緣門論)>이라고도 한다. 돈황본 자료로는 4종의 페리오본을 비롯해 <소실일서>의 수록본 등이 전해진다. <절관론>의 본문에 대한 연구는 이미 우두 법융 및 달마 대사 등과 관련해 여러 편의 논문 및 저술로 작성됐다.

<절관론>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의 뜻을 계승해 찬술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이입사행론>에 수록돼 있는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달마의 찬술이라는 학설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삼장법사보리달마절관론>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점은 오히려 그만큼 달마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긍지심과 아울러 달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개돼가는 당시 선법의 상황을 보여주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전등계보의 계승이 곧 <절관론>으로 출현됐다. 그런 점에서 <절관론>의 내용은 당연히 반야사상의 충실한 계승이었다. <절관론>은 사상적으로 당시 교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삼론(三論)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에 바탕해 달마선의 전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절관론>에서 절관(絶觀)이라는 말은 삼론의 대성자인 길장(吉藏)의 <대승현론(大乘玄論)> 가운데 보이는 말이다. 절관은 심중(深重)한 반야의 뜻에서 절관의 반야이기도 하다. <절관론>의 주제를 보면 그 도입부에서 "본래 대도는 대단히 미묘해 분별심으로 알 수가 없고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선법의 교의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으로 입리(入理) 선생과 연문(緣門) 제자의 두 사람을 내세워 대화의 형식으로 전편이 구성돼 있다. 가령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마음을 유(有)라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케 하려고 의도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한다. 곧 절관의 도리는 분별과 집착과 공능과 조작 등을 초월해 무심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문제자가 물었다. "부처란 무엇이고, 도는 무엇이며,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리 선생이 답했다. "일물도 없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곧 부처이다. 모든 것에 통달하는 것이 도이다. 세계가 생겨나는 것이 변화이다. 모두 사라져 고요한 것이 영원이다."

한편 <절관론>의 마지막 대목에는 연문제자가 마침내 깨침을 터득하고 입리 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탄해 묻는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스승께서는 설함이 없이 설하셨고 저는 들음이 없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설함과 들음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신 문답을 스승께서는 무어라 부르면 좋겠습니까." 입리 선생은 이심전심으로 파악하고 나서 연문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래 그윽한 진리는 미묘하여 언설이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가 질문한 것은 모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가령 꿈에서는 참으로 번거로웠지만 깨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이 가르침을 세상에 유통시키고자 질문을 만들고 언설을 빌린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흔적마저 거두어야 좋을 듯하다. 이에 <절관론>이라 말한다."

<절관론>의 입장은 이와 같은 반야공관의 사상을 근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논리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절관(絶觀)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것처럼 생생히 움직이는 인간의 대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그 사상을 실제생활의 안심 위에서 체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서로서 그 면목이 드러나 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교 육 과 정 ◆

■ 실기교육 : **홍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모 집 : **수시모집**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초보자도 여법하게 불공과 제의식 가능하도록 교육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교육내용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증(중풍) / 뇌성마비 / 척수마비 / 루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타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의학박사 엄갑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한국B,N 카이로프락틱협회 경영고문
· 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사범자격소유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3750호) **禪農教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禪農 一道
開心 正覺

◆입 종 비 : 없음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무국장 :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직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 환영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대로 믿고 알고 행하면 행복 성적표 '만점'

학명 스님은 ...

1960년에 출가했다. 1976년 대한불교 조계종 남한산 성불사를 창건했다. 전법과 사회사업에 대한 원력으로 벽담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이웃 주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후원사업을 전개하며 군법당 구치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법회를 열고 있다. 매년 〈금강경〉 강좌를 실시하며, 하남시 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선사들의 숨은 이야기〉 〈우리말 천수경〉 〈삼세인과경〉 〈금강경 이야기〉 등을 펴내 문서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지장경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

정진과 나눔의 생활화로 '늘 깨어있는 도량'
"진리는 세상에 회향될 때 참 가치 보이는 것"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 계곡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능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산이 클수록 등산로도 많다. 성불의 길도, 불국토를 이루는 길도 중생의 수만큼 다양하다. 중생 각자가 불성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여서 각각의 중생이 각자 인연을 따라 부처의 길을 닦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오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르고 나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된다. 목적은 어느 쪽으로 몸을 돌리느냐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불자가 부처님께 귀의해 배우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간경, 염불, 참선, 사경, 절(拜) 등의 정진으로 산을 오르기도 하고 봉사활동, 복지사업, 캠페인 전개 및 동참, 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으로 산꼭대기의 시원한 바람을 이웃에 전하기도 한다.

남한산을 오르는 여러 길 가운데 서울의 마천동에서 오르는 길은 평일에도 등산객으로 붐빈다. 도심과 산의 경계에 성불사가 있다. 불도(佛道)를 배우는 등산과 불법(佛法)을 세상에 전하는 하산을 동시에 행하는 도량이다. 1976년 성불사를 창건한 학명 스님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수행과 전법의 뿌리로 선포했다.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절에 와서 함께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때 기도와 정진에 힘을 얻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각각의 사정이 있지만 향하는 목적지는 같은 것처럼, 같은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공동으로 갖는 원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와서 각자 마음대로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절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불사에서는 '바르게 믿고(信) 바르게 알고(解) 바르게 실천하고(行) 바르게 깨닫자(證)'는 것을 공동의 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명 스님은 성불사의 사시(寺示) 즉, '신해행증'을 구체화하는데 한 순간도 방일하지 않는다. 그로써 불자들의 지침이 되고 모범이 되어 기도정진과 각종 나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스님은 '신해행증'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信)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불사에 시주하고 발원하여 기도불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믿음이 중요하고 회사나 단체에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믿음이 사라지면 불행해 집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信爲道源功德母]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좋은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좋게 하는 믿음과 나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말에 속아 그 실체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믿었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좋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바른 눈, 혜안(慧眼)이 있어야 합니다. 혜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소한 관계에서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의 유기적인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믿음에도 함정이 있다. 허방다리를 밟으면 불행의 구덩이로 빠진다. 허방다리가 아니라 단단한 믿음의 다리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명 스님은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解)는 바르게 아는 것인데 지혜(智慧)로 가는 길입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 말입니다. 그릇된 견해는 대개 아집(我執)에서 비롯됩니다. 아집을 버리고 나면 사물이나 어떤 일의 이치가 보입니다. 입고 있으면 옷이고 세탁기에 들어가면 빨래라 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어떠어떠한 천으로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재단하고 마름질하여 만들었다는 것까지 분석해 냅니다. 그냥 옷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물건에도 이렇게 많은 측면이 잇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옷이라는 물건의 참모습일까요? 〈금강경〉에서는 '소위 불법이란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법일 뿐'이라고 했잖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 우선 집착을 버려야 하고 다음으로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여 철저한 깨달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아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맹신(盲信)이나 미신(迷信)에 떨어집니다. 바른 믿음을 지켜 주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고 바른 깨달음은 각종 상(相)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는 바로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안으로 나를 닦고 밖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자연스럽게 바른 실천으로 넘어갔다.

"행(行)은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法)에 의거해 법에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행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혼자 알고 즐기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그 오묘한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한 법의 귀중함을 상징하면서 그 진리는 대중에게 회향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인 겁니다. 부처님께 한량없는 자비심이 없었다면 불교도 없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집착 없는 마음이 '정토'

혼자 즐기고 말았으면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 올 불교라는 종교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불자의 행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보배세상을 중생들에게 펼쳐 보이셨듯이 불자들도 불법에 귀의하여 배운 바른 진리를 이웃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비이고 자비는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성이 비판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일도 그런데 불법(佛法)의 찬란한 세상에서 불성을 드러내지 않고 편협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불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00년 후 100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막할 겁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윤회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지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이치 말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얼마나 배우고 알아차리고 얼마나 실천하는가를 반조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는 순간 환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과 앎과 행함은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작용도 아니다. 하나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다. 학명스님은 "믿는 시간 따로, 배워서 알아차리는 시간 따로 실천하는 시간 따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 동시에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 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깨닫는 것(證)이라는 설명이다.

"천지(天地)는 동근(同根)이라 했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너입니다. 미물이라고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물도 치열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높은 산은 높아서 좋고 낮은 산은 낮아서 좋은 겁니다. 차별(差別)을 넘어서야 진실이 보입니다. '토끼와 호랑이'가 지금의 형상을 넘어서면 '호랑이와 토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차이를 차별해 버리면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윤회하는 중생 모두가 일체평등의 자리에 들 수 없게 됩니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처님의 선언은 지금 보이는 차이에 끌리지 말고 근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의 근원은 바로 부처, 불성입니다.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고 옆 동네 독거 어르신이 나의 아버지인 겁니다. 부처가 되길 바란다면 먼저 모든 생명을 부처로 보는 눈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입니다."

성불사에 다니는 불자들은 모두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들이다. '신해행증'의 생활화를 주창하는 학명 스님이 각종 사회사업의 길을 열면 불자들은 묵묵히 그 길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군부대 교도소 법회와 지역 경로당이나 독거 어르신 위문 및 경로잔치는 기본이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을 꾸리면서 공부하는 불자상 확립을 위해 <금강경> 강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다출산장려금후원회'를 조직해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시 불자님들에게 나누는 삶의 행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 거창한 계획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불자는 회향하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수행이라는 안살림은 나누고 베푸는 바깥살림을 통해 회향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을 청해 대중공양을 올린 사자(師子)의 공덕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의 맛을 보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에는 강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바닷물을 마시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사로운 일체의 공양과 보시는 저 강물과 같다. 그래서 복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한다. 대중은 저 바다와 같다. 모든 훌륭한 사람도 다 대중 가운데 있다'라고. 물론 부처님은 '축생에게 보시를 해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며 대중공양만 수승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증일아함 '불선품')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바닷물을 떠먹을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바다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가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학림 스님은 불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는 길을 열었고 그 길에서 무한한 공덕의 꽃을 피우고 있는 셈이다.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앎을 견고하게 다지고 바깥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드러내면 아무런 공덕이 없을 뿐 아니라 속으로 집착의 그늘만 두꺼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에도 응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데…."

강을 건넌 사람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믿음의 길이 반듯하고 공부하여 안살림을 챙기는 힘이 굳건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학명 스님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불자가 늘어날수록 사람 사는 세상이 극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극락이 어디입니까? 행복한 그 순간이 극락이고 마음 편한 그 자리가 정토입니다. 수시로 극락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극락이 허물어지면 지옥이 지어지겠지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극락을 몇 시간 짓고 지옥을 몇 시간 짓는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신해행증'이라는 4과목의 성적표 말입니다."

법당에서 목탁소리가 울렸다. 법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가사를 수하고 있던 학명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시간 됐으니 이만 줄입니다. 부끄러운데, 아무 말 안들은 걸로 하면 더 좋겠고…."

급하게 법당으로 향하는 학명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엉뚱한 궁금증이 솟았다.

'스님은 지금 신 해 행 증 4과목 가운데 어느 과목을 수업하러 가시는 걸까?'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

불교 전래의 주역… 고대 왕권국가 기반 다져

백제로부터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해 예전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대체로 <일본서기>의 552년설과 <원흥사연기>등의 538년설이 대립을 이루고 있었지만 후자가 유력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일본서기>의 편찬자가 불법의 쇠퇴를 말하는 말법사상에 의거 실제보다 연대를 늦추어 잡았다는 설 등이 설득력 있게 되고,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 538년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천도해야 했으며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간 고대교류사에 불교의 개입은 더욱 흥미로움을 자아낸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내에서 불교의 전래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 506년경~570) 모셔야 하거늘 지금 다시 번신(蕃神)을 모시게 되면 아마도 신의 노여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왕은 "그러면 불상을 모시고자 하는 소가노 이나메에게 이를 맡겨서 시험 삼아 예배하도록 해보자"는 절충안을 냈다. 이나메는 불상을 집에 모시고 정성껏 예배했다. 이후 나라에 역병이 돌자 반대파는 이를 불상의 탓으로 돌려 지금의 오사카(大阪)인 난바(難波)의 강에 버리게 하고 불상을 모신 절도 불태워 버렸다. 이후 또 한 차례의 폐불 파동이 있은 후에야 불교는 일본 국내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됐다. 7세기 초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에 의해 불교는 비로소 일본 고대국가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부여 받게 됐다.



나라에 소재한 원흥사(元興寺). 6세기 말 소가노 우마코가 지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인 아스카사(飛鳥寺)가 그 전신이다.

지금의 말로 하자면 이나메는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테크노크렛에 해당한다.

이미 이나메는 고대 왕권국가 확립의 기반 조성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미야케(屯倉)라고 하는 왕의 직할지를 곳곳에 두어 행정체계와 재정적 기반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통치와 재정관리의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기술 관료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들 우마코(馬子)는 정계를 장악해 쇼토쿠 태자와 더불어 고대 통일국가체제 확립에 기여했다. 불교가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주역의 역할을 담당했음은 이처럼 소가씨족의 활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번신'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웃의 신, 외국의 신이라는 말로 옮겨진다. 일본열도에는 야오요로즈노 카미(八百萬神)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진다. 수없이 많은 신이라는 뜻인데, 일본에는 신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신들이 모셔지고 있던 것이다. 불교가 이러한 신들 중의 하나인 외래의 신으로 보였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다. 이후 전개되는 일본불교의 역사는 신들과의 제휴과정인 신불습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숭불파이자 개혁파인 이나메의 대척점에 서있었던 배불파는 토착신들을 모시는 원주민 계통이자 보수파였음은 여기에 미루어 충분히 짐작된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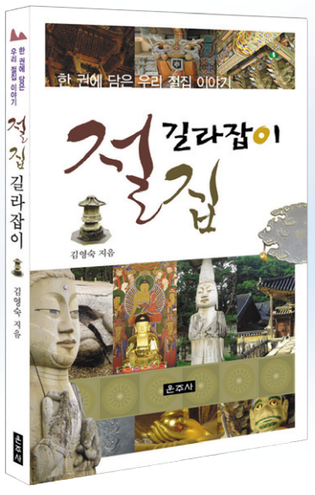
한 권에 담은 우리 절집 이야기!

절집 길라잡이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절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런 모양으로, 왜 그런 구도로, 왜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준다.

김영숙 저 | 신국판 변형 | 컬러 | 224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⑩ <끝>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



그림 · 김필헌

◆부촉유통(付囑流通)

대사께서는 71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고별하셨다. 7월에 신주 국은사에 탑을 조성하고 작별을 고했다.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그대들은 의심이 있으면 빨리 묻도록 해라. 그대들을 위해 의심을 깨우쳐 미혹을 다 없애고 그대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리라."

법해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으나, 오직 신회만이 잠자코 있으며 슬피 울지도 않으니, 육조 대사께서 말했다.

"나이 어린 신회는 도리어 좋고 그름에 대해 평정함을 얻어서 헐뜯고 칭찬함에 동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대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함인가? 나의 가는 곳을 그대들이 몰라서 근심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나 가는 곳을 모른다면 그대들에게 고별을 하겠는가?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이니,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去)도 없고 옴(來)도 없느니라. 내가 그대들에게 한 게송(偈頌)을 보게 하려 다시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見眞佛解脫頌)'를 남기니,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달은 이는 바로 보느니라."

"만약 뒷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지니, 그러면 바로 능히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니, 본래로 중생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그대들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내가 게송 하나를 남기리니 '자성진불해탈송(自性眞佛解脫頌)'이라고 이름 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들이 이 게송의 뜻을 들으면 바로 자기의 마음, 자기 성품의 참부터를 보리라. 그대들에게 이 게송을 주면서 내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법신과 보신, 화신불이여(法身報身及化身)

삼신이 이 몸과 더불어 하나인 것을(三身本來是一身)

마음 열어 스스로 성품 갖추면 (若向性中能自見)

그 자리가 부처 이루는 바탕인 것을(卽是成佛菩提因)

"이제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속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그런 짓은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내가 살아있던 때와 한가지로 모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감(去)도 없고 옴(來)도 없으며,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탄연(坦然)히 적정(寂靜)하면 이것이 큰 도(道)이니라.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가지일 것이나.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그대들이 가르침을 어기면 내가 있은들 이익이 없느니라."

빛이 곧 어둠이요 어둠이 곧 빛이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요, 출가 · 재가는 하나이다

부촉유통(付囑流通)은 혜능 스님께서 죽음에 임박해 여러 제자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혜능 선사는 수법제자들을 모아 놓고 법을 펴고 중생들을 교화함에 있어 양변(兩邊)을 떠나고 양변에 자유로운 즉리양변(卽難兩邊)을 강조합니다. 모양(相)에 집착하고 양변에 기울게 되면 헐떡임과 흔들림만 더하게 됩니다. 눈 · 귀 · 코 · 입 · 몸 · 뜻의 여섯 개의 문을 통해 색깔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분별의 여섯 무늬가 넘나들며 백팔번뇌의 생멸을 거듭하게 됩니다.

들숨이 날숨으로 이어지면 사람이요, 날숨이 들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송장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누구나 보다 나은 행복이 으뜸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필요성 또한 괴로움을 떠난 즐거움의 추구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 대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는 가르침 중심의 종교입니다. 색신(色身)과 법신(法身)이 둘이 아니요, 예토(穢土)와 정토(淨土)가 둘이 아니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 첫 시작에서 마지막장에 이르기까지 열린 진리를 펴 보이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에는 진리의 세계가 널려있습니다. 빛이 곧 어둠이요, 어둠이 곧 빛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요, 출가와 재가가 곧 둘이 아닌 하나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生來坐不臥)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死去臥不坐)
송장이나 다를 바 없는 뼈덩이에서(一具臭骨頭)
어찌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하랴 (何爲立功課)

부처님은 <잡아함경> <중아함경> 등을 통해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 제자들은 논리와 표현을 갖춰서 나의 가르침을 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쥔 주먹을 펴 보이는 것처럼 신도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말하라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극락세계가 멀지 않다고 말하며,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정토임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자갈처럼 널려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킬도 하이드도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내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사바세계 또는 정토의 극락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와서 볼 수 있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며, 행복과 자유로인도될 수 있는 설법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조 스님의 진리를 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금생을 포기하려 합니까. 금생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조 스님도 지금 이 때가 황금기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해 하지 말며, 걱정을 미리 앞당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불을 한다던지, 참선을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그 차제가 기적인 것입니다. 남은 생을 살면서 마음을 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지 말라. 문은 항상 열린 채로 있느니라. 두드리려는 마음이 곧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든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고 구하려 할수록 번뇌에 찬다."

진정한 불교신앙의 목표는 바로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선(禪)의 역사는 염화미소(拈花微笑)로부터 비롯됩니다. 부처님이 설법 중에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일 때 많은 대중은 그 뜻을 몰라 잠자코 있었으나, 마하가섭만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과 글로 전할 수 없는 진리의 심인(心印)을 가섭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화는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은 한역 <대장경>에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의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은 학자들의 고증과 연구에 의해 위경(僞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이 위경이든 아니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염화미소의 일화가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중생들에게 다함이 없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기록이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기록이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모아진 자료와 구전 등에 의해 쓰여 졌다면 더욱 본래의 색깔과는 사뭇 다른, 바래진 무늬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아함경>에 독화살에 관련된 일화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고 우선 독화살을 제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친개가 멀리서 달려올 경우,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해야 합니다.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잠이 깨면 호랑이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와서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축도생은 진리는 이 마음이며(法卽是心) 이 마음은 곧 진리(心卽是法)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거나 숨어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의 병,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이 곧 부처요(心卽是佛) 이 생활이 곧 진리(生法是道)라고 말하셨습니다. 혜능 스님은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이며, 마음이 열리면 서있는 자리 그대로가 예토가 아닌 정토라고 말했습니다. 임제 스님 또한 어느 곳에 있던 그대가 세상의 주인공이며 이르는 곳마다 다 진리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혜능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구절의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게송이 한 구절뿐인 것은 아마 혜능 스님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있는 일입니다. 글을 옮기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 제자들과 후세의 중생들을 위해 게송을 읊는 스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듯 가슴이 아립니다.

육조 혜능은 이렇게 마지막 모습도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혜능 스님은 자유인이자 참사람이었으며, 그는 살아 있는 부처님이자 따뜻한 우리 모두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열반송(涅槃頌)을 남긴 후 단정히 앉아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1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는 죽지 않고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스님께서 76년 동안 세상에 머물다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대자유인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를 끝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차분히 의연하여 착함도 닦지 않고(兀兀不修善)
막힘과 걸림 없어 악 또한 모르는 일(騰騰不造惡)
그윽하고 그윽하여 일체를 쉬려하매(寂寂斷見間)
실오라기 하나에도 머묾 없어라(蕩蕩心無着)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Ⅰ Ⅱ Ⅲ**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Ⅳ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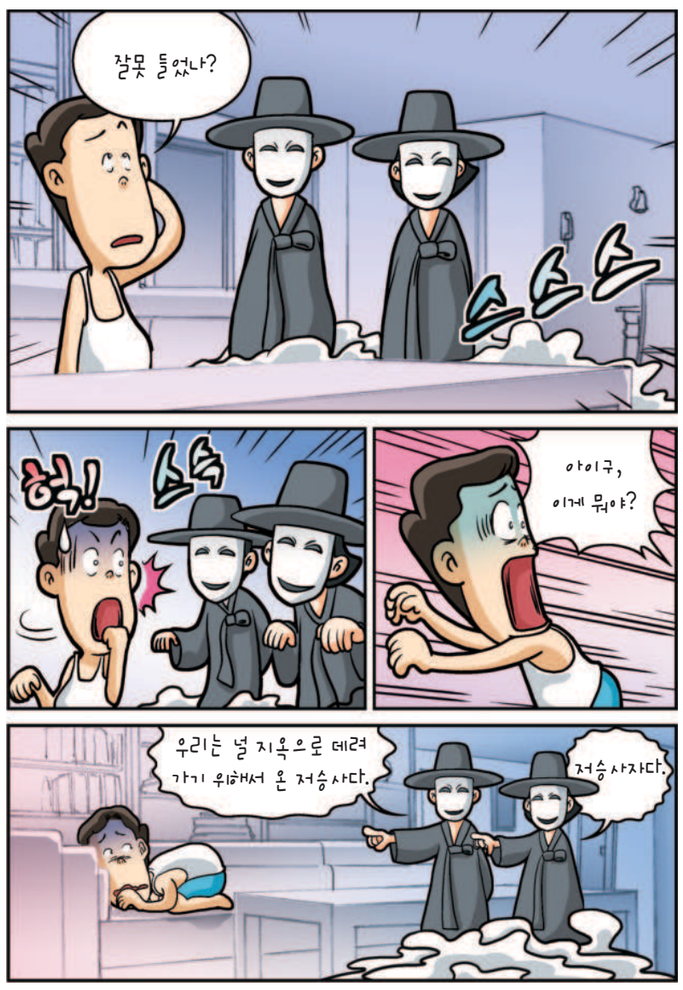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요절복통 여래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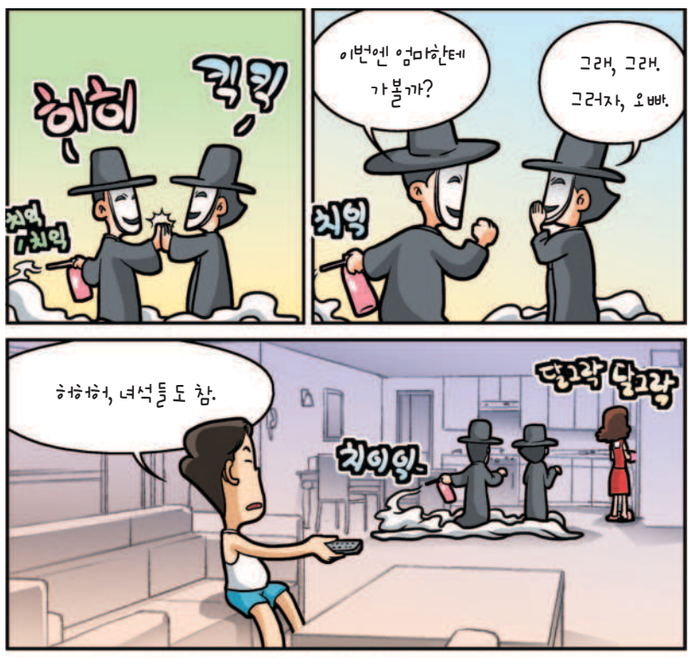
#20.납량특집 저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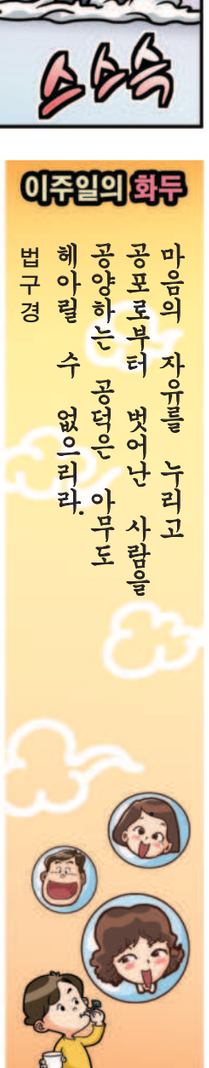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공양하는 공덕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으리라.
법구경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大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中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회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 · 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글로서 그 법을 직접 이어받은 78대 대원 선사님의 육성으로 이 법문을 듣는다면 깨달아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낙을 누릴 정법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양 나래를 편 대선지식의 회상에서 정법의 진수를 누리십시오.

국제 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1인당 6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번지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잠재력 퍼올리는 코칭, 세간의 주목 받다

기업전문코치 허달 '마중물의 힘'서 코칭 조명

2004년 오스카상을 휩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 주연의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매기라는 여자복서와 프랭키라는 코치의 이야기다. 앞으로의 선수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기에 임한 매기가, 적어도 두 번 상대방의 강타를 허용한 힘든 라운드를 싸우고 코너에 돌아와 스툴 위에 주저앉자, 코치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진행된다.

매기: 상대가 너무 강해요. 파고들질 못하겠어. 펀치를 먹일 거리까지 접근이 안돼요.

프랭키: 왠지 알아?

매기: 왜죠?

프랭키: 상대가 너보다 나은 선수이기 때문이지. 너보다 젊고, 너보다 세고, 경험도 많아. 자, 이제 어떻게 할래?

공이 울리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자, 매기는 몇 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을 매트 위에 쓰러뜨리고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를 한 것일까?

한국코칭센터 고문을 맡아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허달 거사는 "코칭이란 경청과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았으므로 그 해결 방안은 오래 지속되고 행동력도 외부로부터 주어진 해답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한다.

허달 거사의 말에 따르면 프랭키는 일반 코치처럼 "왼쪽 가드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라든지 하는 기술적 조언을 하는 대신 "자! 이제 어떻게 할래?"라는 강력한 질문을 매기에게 던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기의 존재에 작용해 두뇌 회전을 가동시키고 경기의 패러다임을 두뇌를 가진 복서와 두뇌를 갖지 않은 복서의 싸움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허달 거사는 2009년 6월 10일부터 본지에 35회에 걸쳐 연재해온 칼럼 '불교와 코칭'을 모아 단행본 <마중물의 힘>을 펴냈다.

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전, 물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펌프에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펌프를 작동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이를 퍼올릴 수 없듯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의 힘>은 한때 기업 경영 일선에서 활동한 저자가 불교와 코칭을 접목시켜 쓴 칼럼을 모은 책이다. 책에 실린 글은 인문학적 사유와 리더십, 코칭을 절묘하게 결합했다.

저자는 "코칭을 제대로 하려면 눈앞의 과제나 목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코치 받는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코칭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여타 세계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허달 거사는 코칭과 카운슬링, 그리고 멘토링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카운슬링은 내면의 상처(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 여행을 하는 심리학적 치료라면, 코칭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밝은 미래를 추구하고 이를 확장함으로써 과거의 트라우마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고 오히려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다. 반면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멘티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멘티로 하여금 사고를 제약하지만, 코칭은 고객의 잠재력이 무한함을 신뢰하고 그의 존재에 다가가 작동기제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가 솔루션을 창출해 낼 것을 굳게 믿는다.

저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친절하고 끈기 있는 경청과 현명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을 돕는 것, 그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어 행동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코칭'이라고 이야기 하면 별로 틀리지 않다"며 "코칭은 상대방의 존재에 다가가 이에 접촉하는 행위이며, 그러기에 경청 · 질문의 기술에 앞서 상대방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그 기본이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말하는 코칭기법은 이미 불교에서도 있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었더냐?"는 부처의 금강과 같은 질문이 중생계의 무명을 뿌리 채 잘라내 중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이룬 부처임을 깨닫게 하는 작용임을 눈여겨 보면 일찍이 부처야 말로 중생의 위대한 '코치'였던 셈이다.

책의 저자 허달은 SK 부사장, SK 아카데미 교수, 한국화인케미칼(주) 사장을 역임하고 조계종 인재개발원의 지도위원을 맡는 등 경영활동과 코칭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다. 이러한 저자의 화려한 경력이 책 속에 녹아들어 코칭 기법과 불교의 가르침을 풀고 있다. <마중물의 힘>을 통해 독자는 전인적 성장의 비결을 아는 과정에서 기업 이야기, 불교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마중물의 힘 | 허달 지음 · 정원영 그림 | 여시아문 펴냄 | 1만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길에서 꿈꾸고 길에서 생 마감하리라



"승가에 입문하기 전 이글을 마친다. 승가에 귀의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불교 성지순례에 있었다.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는 길에서 꿈을 펼칠 것이며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리라."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는 2010년 봄, 뜻밖의 출가로 문단에 충격을 준 차창룡 시인이 출가 전 탈고한 인도 기행문이다. 저자 차창룡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로,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등단한 중견 시인이다.

속세에서 마지막으로 쓴 저자의 책은 불교를 더욱 알고자 하는 원력이 가득해 기행문이지만 여느 기행문과 분위기가 다르다.

저자는 2001년, 2008년, 2009년 세 차례의 여행을 통해 불교의 신화가 깃든 주요 성지들을 둘러 보았다. 기행보다는 인도사람들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책은 힌두교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라고 믿는 힌두교 신자들 이야기와 부처님 전생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불교이야기를 펼쳐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 사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보드가야, 바이샬리 등 주요 성지들을 둘러 보았다.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 | 차창룡 지음 | 북하우스 펴냄 | 1만 5000원

노덕현 기자

고통없는 삶을 꿈꾸는 싯타르타 이야기

김규현 작가의 다양한 삽화 눈길… 부처님 일대기에 대한 새로운 시도

자본주의의 욕망이 춤추는 사회, 초등학생조차 극심한 경쟁사회의 일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더 삭막해지고 메말라간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를 소재로 미래세대에게 많은 어필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불교컨텐츠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다양하지 못하다.

현재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인 저자 백승권은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로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는 서원 아래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를 펴냈다.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부처님의 생애'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 일대기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부처님 일대기와는 색다른 점이 많다.

요즘 아이들이 따분하게 여기는 천편일률적인 찬탄을 배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설적 기법으로 재미있게 부처님 이야기를 풀어놓은 점이 매우 돋보인다.

"붓다는 원래 '싯다르타'라는 이름의 아이였지만 누구보다도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싯다르타는 사람을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 속에 빠져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싯다르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라는 특권을 버렸습니다…"

저자는 서두에 어린 싯다르타를 묘사하며 남다른 감수성과 연민을 가진 싯다르타 왕자의 인간적인 고뇌와 꿈과 희망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은 사실을 알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싯다르타 왕자의 슬픔, 밭갈이 행사에 나갔을 때 힘겹게 일하는 농부의 땀방울,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노인과 병자, 장례행렬 등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싯다르타 왕자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출가해 깨달음을 이룬 뒤 임종 직전까지 고통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부처님의 따뜻한 모습이 감동이다.

불교 경전 속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 중 '뗏목의 비유' 등 일부를 부처님 일대기에 녹여냄으로써 재미와 감동, 교훈을 배가시켰다.

한편 이 책의 그림은 티베트와 네팔을 20여 년 넘게 다니며 관련서적 8권을 집필할 정도로 불교사상 · 문화에 탁월한 김규현 작가가 맡았다. 단순한 삽화가 아님은 물론 예술성 높은 그림에서 더 나아가 신심과 수행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여덟 가지 모습인 팔상성도는 시간의 흐름까지 참신하게 표현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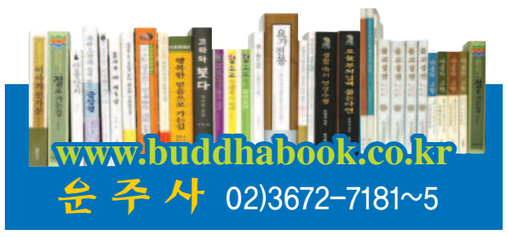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 | 백승권 지음 · 김규현 그림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3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원철	뜰
6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7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풍경소리
8	절집 길라잡이	김영숙	운주사
9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10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자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당뇨와
성인병 예방에 좋은 고봉스님의 당조 고추!!

삼보 귀의 하옵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 하시던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와 농사짓는 수행 속에 자연 친 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올해도 당조고추를 재배하여 수확에 들어 대덕 큰 스님과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면으로 인사 올립니다.



"당조고추란..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일반고추에 비해 20~50%가량 크고 일반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약간 매운 맛과 안 매운 맛으로 구분 됩니다.

친 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당조고추!!
당뇨 및 성인병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작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대덕 큰 스님과 불자님들의 관심과 부족한 소승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심에 힘 입어 더욱 더 자연과 더불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번지
054)383-0407 / 010-2750-4394
정토원 주지 고봉 합장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굿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불교계의 비 원효, 여명의 여운 남긴다

극단 신화레파토리 '여명의 바다-원효' 산사음악회서 공연… 마당극 형식 빌려



7월 15일 서울 망원동 연습실에서는 연출가의 지도로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 역의 배우들이 '요석궁에서의 만남' 장면 연습에 한창이다.

풀숲에 진홍 빛깔을 살포시 드러내는 앵두나무가 제법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 여름 밤,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또 그 속에 숨어있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더위를 식혀 줄 연극이 선보인다.

"어머머머! 이게 누구야? 불교계의 비, 원효 대사님 아니세요. 곡차는 뭘로 때리실까? 양주? 맥주? 아니면 말아서?"

"내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야 없지.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자. 색스러운 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라?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아 세존이시여!"

8월 16일 완주 송광사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전국사찰 산사음악회 등에서 불자들을 찾아갈 연극 '여명의바다-원효'. 원효 스님이 소성거사로 살아가며 던지는 이 대사는 작품을 관류하는 주제다. 드라마 대장금과 대조영, 선덕여왕과 거상 김만덕 등에서 열연을 펼쳐 온 김영민 신화레파토리 단장이 연출을 맡았다.

불교 중흥기로 접어들기 전 신라 하층민에게 불법은 어떻게 전해졌을까? 대중과 소통하는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하기 위해 연극은 원효 일대기의 뼈대를 세 가지 마당으로 나눠 집중한다.

그 첫 번째는 당나라 유학길에서 원효 스님이 해골 물을 마시는 부분이다.

"아뿔싸! 간밤에 내가 마셨던 물이 해골에 고인 물이었단 말인가?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도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경지가 열리는 게지!"

원효 스님으로 분장한 배우는 무애춤을 추며 관중들에게 다가간다. 관중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마당극 형식으로 연극은 진행된다.

대중들이 불교를 접하는 데 대한 답을 구하자마자 연극은 또 다른 마당으로 이어진다. 원효 스님을 사모하는 요석 공주의 청으로 무열왕이 원효 스님을 궁으로 들게 하는 장면이다.

"원효 대사, 내 이 가슴의 젖이 반드시 본 국에 큰일을 할 사람에게 쓰일 것 같으니 이내 소원 이뤄주소서!"

무심해 보이는 원효 스님과 이를 애절한 눈빛으로 붙잡는 요석 공주의 뒤로 요석 공주의 마음을 표현한 한 명의 무용수가 선 고운 춤사위를 펼친다.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 사이에서 나온 설총 역으로는 실제 동자승이 나와 웃음을 선사한다.

세 번째 마당으로는 파계승인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의 만남, 원효 스님이 관음보살의 현신인 아름다운 여인을 옥류폭포에서 만나는 일화로 꾸려진다.

이중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의 만남은 이 연극의 백미다. 대안 스님 역에는 김영민 단장이 직접 나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와 춤을 추며 관객들과 교감을 나눈다. 이 부분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 배우들은 마당극과 같이 관객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주고 받는다. 성속을 떠난 가르침에 대해 대화를 나눈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이 객석으로 퇴장하며 더욱 흥을 돋운다.

이들이 객석으로 사라지면 요염한 자태의 여인이 춤을 추는 가운데 자재암 창건 설화가 펼쳐진다. 여기에서는 목탁이란 스님이 해설자로 등장해 원효 스님이 갖은 유혹을 요지부동의 자세로 이겨내는 부분에 해설을 덧붙인다. 원효 스님이 옥류폭포 가에 암자를 지은 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란 자재암을 이름 붙인다는 역사 설명도 또 다른 맛이다.

이처럼 세 마당 속에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화쟁' '원융회통' 사상이 절묘하게 녹아 있다. 무대와 조명장치 또한 최소화해 대중과 어우러짐을 노렸다. **노덕현 기자**

인터뷰-김영민 신화레파토리 단장

"사찰 무대로 불교만의 해학 풀어볼 터"

개신교 공연하며 불교연극의 미래 발견해



전국순회공연작인 연극 '여명의바다-원효'를 준비 중인 김영민 신화레파토리 단장(사진)은 "이번 연극의 특징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형태에서 탈피해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진 총체연극(마당극)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여명의바다-원효'는 각설이 타령과 해학적인 대사 등이 어우러지고 실제 동자승(설총 역)이 출연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많은 극적 장치들이 시도된다.

김 단장은 "음악 위주인 사찰음악회 등에서 춤이 어우러진 연극이 가미된다면 불교문화공연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출에는 40여 년 간 연극과 TV 등에서 연기를 펼쳐온 김 단장이 느낀 불교계 공연문화의 현주소가 반영돼있다.

김 단장은 "예전 친목차원에서 개신교 연예인 공연단에 참가해 베드로 역할을 맡아 전국 순회공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연기를 하며 불교계도 연극으로 포교의 장이 새롭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교회 등에서 연극을 펼칠 때 좁은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호응하는 교회 신도들을 보며, 굳이 사찰 대웅전과 앞마당 등 특정한 무대를 만들이 않고서도 장소를 불문하고 불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불교연극을 해보자는 꿈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가족 중 일원이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대불련 회장을 역임하고, 불교 언론계에서 일하며 자신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김 단장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 때로는 혼자 강화 전등사를 찾으며 이러한 생각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아직 사찰 등에서 변변한 후원조차 없지만 김 단장과 신화레파토리는 포교에 대한 원력 하나로 2년간 공연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향후 고승을 소재한 연극 외에 생활 속 불교를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선보이고 싶다"며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랩과 댄스 등으로 젊은 세대들을 불교로 이끌고 있는 강혜은과 순야타. 사진제공=연꽃의소리

랩 · 댄스 붓다와 만나면

연꽃의 소리 2집 'Samsara'

랩과 댄스로 자비와 지혜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는 현대적인 차세대 찬불가가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6년 1집 '패랭이꽃과 나그네'에서 랩, 스님과 소녀의 듀엣 등으로 불교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연꽃의 소리'(대표 박금표)가 7월 22일 신촌 홍대 앞 상상마당에서 2집 'Samsara'를 발표했다.

윤회를 뜻하는 'Samsara'는 전생 · 내생, 그리고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이번 앨범에 붙여졌다. 영산재 이수자인 지허 스님(천수사 주지)과 불교방송 불교음악 감상실을 진행하며 엘리스블루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혜윤씨, <반야심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등을 랩으로 재해석해 군 포교 활동 등에 나서고 있는 래퍼 순야타 등이 앨범 제작에 참여해 젊은 감각에 맞는 찬불가를 노래했다.

이번 앨범에는 '성불하세요' '자비의노래' 'Spring' 등 찬불가 외에도 'SMADI PRAZNA' 등 보조국사 지눌 스님 열반 800주기 기념 헌정곡, 보사노바(삼바에 모던 재즈를 섞은 현대음악) 'Feel U Now For Avalokiteshvara'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실렸다.

연꽃의 소리 박금표 대표는 "배가 건너는 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집 앨범 'Samsara'를 만들었다"며 "이번 앨범이 바쁘게 앞으로 내달리기만 하는 현대인들이 깨달음의 바다를 건너는데 나루 역할을 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02)723-9836, www.soundoflotus.com **노덕현 기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

최연의 산 이야기 <20> 황악산 3



백화산 능선 사이로 흐르는 송천이 반야사를 거쳐 금강으로 흘러든다.

물한계곡 물줄기 송천과 만나 금강으로 흐르는구나

황악산의 남쪽으로 김천 · 성주 · 선산 고을이 있다면, 북쪽으로는 황간 · 추풍령 고을이 있다. 황간(黃澗)은 본래 신라의 소라현이었다가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백두대간 상의 민주지산에서 발원한 물한계곡의 물이 삼봉산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쳐져 장교천(長橋川)을 이루며, 황간을 지나 달도 머물고 간다는 월유봉(月留峰)에서 상주 땅 화령의 진산인 봉황산에서 발원하여 황간의 백화산(포성봉이라고도 함)을 휘돌아 흘러온 송천(松川)과 만나서 그 흐름을 금강(錦江)의 물줄기로 향한다.

그 장교천의 물빛이 누렇다고 하여 예로부터 황간(黃澗)이라 하였으나 황계(黃溪)와 더불어 이미 신라시대부터 불러온 이름이다. 장교천이 송천과 만나기 전 저만치 언덕에 전서체(篆書體)의 글씨로 아주 잘 쓴 '회도석(回櫂石)' 이라는 푯돌이 하나 서있는데 말 그대로 '뱃머리를 돌리라는 뜻이다.'

<영동군지(永同郡誌)>에 따르면 광교천에 배 모양의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배가 줄곧 하류로만 내려가려고 하니 황간의 기운을 밖으로 실어내는 꼴이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볼 때 황간 땅이 이미 떠나가는 배의 형국이라 회도석을 세워 그 뱃머리를 돌리려했다는 것이다.

백화산을 휘돌아 흐르는 송천 강변에 자리 잡은 반야사는 의상스님의 제자 상원(相源)스님이 창건하였다. 천변도량(川邊道場)으로 남한강의 신륵사(神勒寺) 소양강의 청평사(淸平寺)가 강 언덕에 있으나 강으로부터 제법 떨어져 있고, 포항의 오어사(五魚寺)는 비록 물가에 바투 있지만 호반(湖畔)에 기대어 있는데 비해 반야사는 절 마당이 금강의 줄기 송천과 맞닿아 있다.

추풍령은 면소재지가 있는 작은 산읍(山邑)이다. 본래는 금산군(金泉)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충북 영동군에 속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추풍령에 대해 "경상도와 충청도가 갈리는 곳에 있어 일본의 사신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청주를 경유할 때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감으로 관(官)에서 접대하는 번거로움이 상주와 맞먹는 실로 왕래의 요충지"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이른바 영남대로라 부르는 문경새재 길에 견줄 만큼 추풍령 길의 통행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글은 금산군(金泉) 동헌의 중수기(重修記)여서 특정지역에 대한 부풀림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추풍령 길은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새재에 비하면 무척 한가로운 길이었다. 백두대간의 남쪽 즉 영남(嶺南)의 사람들이 서울 가는 길은 반드시 백두대간을 넘어야만 갈 수 있다. 그 고개 길은 풍기에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죽령(竹嶺), 김천에서 황간으로 넘어가는 추풍령(秋風嶺),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새재, 즉 조령(鳥嶺)의 세 갈래로 크게 나뉜다.

고개가 셋이듯이 서울 가는 길도 세 길이었다. 부산에서 대구, 상주,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 용인을 지나는 영남대로(嶺南大路)와 영천, 안동을 지나 죽령(竹嶺)을 넘어 서울로 가는 영남좌로(嶺南左路)와 김천을 지나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서울로 가는 영남우로(嶺南右路)가 있었다.

죽령은 삼국시대 초기에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구려에 사신과 공물을 보내는 관로가 계립령이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한강지역에서 백제와 다툴 때 고구려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당나라와 왕래하기 위해 개척한 고개가 죽령이다. 그리고 문경새재 길은 계립령과 새재와 이화령 세 길이 있는데 이를 조령삼로(鳥領三路)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고개는 문경 관음리에서 충주 미륵리로 넘어가는 하늘재인데 이고개의 옛 이름이 계립령이다.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고개의 역할을 다했으나 조선시대에 문경새재를 관로(官路)로 정하여 영남대로의 중추적인 고개로 자리 잡음으로서 하늘재는 관군을 피해 다니는 서민들의 고개가 되었다.

이화령은 문경에서 연풍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화현(伊火峴)이라 기록된 것을 일본이 마음대로 이화령(梨花嶺)으로 고쳐 불렀다.

추풍령 남쪽 고을인 김천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데는 널리 잘 알려진 추풍령과 황악산 사이의 작은 고개인 괘방령(掛榜嶺)의 둘이 있다. 추풍령은 관로여서 백성들이 꺼리는 고개라서 약간 돌아가지만 괘방령을 즐겨 다녔고 또한 한양에 과거보러가는 선비들이야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름 석 자가 방(傍)에 걸리기 위해서라도 추풍령을 버리고 괘방령을 택했을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수염 기르기

아버지 생일이라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올해도 함께 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인 장모가 수염을 기른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염 좀 깎고 오라는 말을 장모로부터 직접 들었으나 나는 깎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 수염이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 기분이 나쁠 것이므로 가지 않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장인 장모는 수염 기른 내 모습을 보지 않으니 좋고, 나는 누군가의 요구로 수염을 깎아야 하는 굴욕감을 맛보지 않으니 좋은 것이 아닌가? 굳이 처갓집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문제는 아내였다. 장인과 장모의 생일을 맞아 일 년에 두 번 가는 처갓집에 한 번도 동행하지 않는 나를 여간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입에 올리면 곧바로 싸움이 일어난다.

장인 장모를 비롯한 처갓집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귀한 딸을 데리고 산 속으로 들어간 것도 못마땅한데 농사까지 짓는다 하니 나를 반길 까닭이 있었을까? 이삿짐을 날라주고 돌아가던 처남은 차안에서 울었다고도 한다. 중풍으로 쓰러져, 누웠다 앉았다 하며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장모로서는 딸을 힘들게 만든 내가 영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수염까지 기르고 다니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는가?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농촌마을에서, 수염을 기른 사위 그것도 가진 것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을 어찌 반겨할 것인가? 깨끗한 얼굴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위를 마을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은 마음이야 장모의 작디작은 소망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그거 하나 못 들어준 내 속이 좁고도 좁다.

> 수염 하나도 맘대로
> 기르기 힘든 세상에서
> 나는 수염을 기르며
> 살아간다
> 수염을 깎을 수 없는
>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 정확한 말일까?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면 깎을 마음이 있다. 허나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게 이런 문제다. 이 사회에서 수염을 기르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 정도 되는 학자이거나 유명한 예술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면 도사나 점쟁이 같은 특수한 사람이다. 학자나 유명 예술인의 경우엔 수염이 문제가 되지 않거니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거나 개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같은 선생이지만 초중등학교 선생은 수염을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 없다. 예술인들도 무명이거나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지라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기 일쑤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이, 코털!" 내게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 나를 부르던 명칭이다. 새 차를 산다는 얘길 듣고 그의 고물트럭을 사서 끌고 다니던 3년 동안 사람들은 내 차를 보고 "이거 엄 씨 차 아냐? 야, 아직 잘 굴러다니네!"라고 얘기하며 눈 아래로 내 모양새를 내려다보곤 했다.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무슨 수염을 기르고 난리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봄날이었던가? 마을 회식자리에서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어이, 왜 버르장머리 없게 수염을 기르고 지랄이야. 내가 수염 깎게 만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내일 당장 깎아, 알았어!"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있었다. 도끼까지 휘두르며 '날 건드리면 목숨이 끊길 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을 단단히 못박아두는 걸로 그날의 싸움을 끝냈다. 그렇게 지킨 수염이었다.

"왜 수염을 기르는데?"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수염 기르면 마누라가 좋아해?" "수염 좀 깎으면 안 되나?" 은근슬쩍 비웃는 웃음과 기분 나빠하는 얼굴 표정까지, 각양각색인 사람들을 보면서 '수염 하나 기르기 참 힘들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인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수염을 굳이 매일 깎아야만 하는가?'라는 지극히 단순한 물음을 떨치지 못해, 자라는 수염을 깎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것뿐이었다.

수염 하나도 맘대로 기르기 힘든 세상에서 나는 수염을 기르며 살아간다. 수염을 깎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정확한 말일까?

■ 유승도 (시인)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 불교 문헌의 대총서를
읽기 쉬운 우리말로 만난다.

신라 1 인왕경소 원측 | 백진순 옮김 | 신국판 | 800쪽 | 35,000원
호국의 비법이 설해진 『인왕경』의 주석서이다. 원측 스님의 말년 작품으로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고려 1 일승법계도원통기 균여 | 최연식 옮김 | 신국판 | 214쪽 | 12,000원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스님의 『법계도』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이며, 균여의 저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균여 화엄사상의 초기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고려 2 원감국사집 충지 | 이상현 옮김 | 신국판 | 480쪽 | 25,000원
고려 말엽에 국사로 활약한 충지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선취적禪趣的인 시와 외세의 영향으로 곤궁에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식인의 고민을 보여 주는 시가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1 작법귀감 백파 긍선 | 김두재 옮김 | 신국판 | 336쪽 | 18,000원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의식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있어 불교의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2 정토보서 백암 성총 | 김종진 옮김 | 4×6판 | 224쪽 | 12,000원
극락의 찬란한 모습과 그곳에 이르는 방법 등 정토신앙에 대한 교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염불수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 3 백암정토찬 백암 성총 | 김종진 옮김 | 4×6판 | 154쪽 | 9,000원
극락과 염불을 노래한 정토의 노래이자, 백암 성총 자신의 인생 여정과 수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서정과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선 4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 김상현 옮김 | 4×6판 | 180쪽 | 10,000원
천불을 조성해 경주에서 배에 싣고 해남 대둔사로 가던 중 일본에 표류하여 겪은 일이 흥미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풍속과 일본인의 조선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언론이 주목한
10년간의 대장정, 그 첫 결실

한국불교전서의 한글본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완역과 같은 문화적 충격을 줄 것 – 문화일보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흔치 않은 책이다 – 경향신문

이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분량만 24만 장에 달한다. 이중 80%가 한글 초역이다 – 중앙일보

향후 10년간 한글 번역본이 200~300권에 이르게 될 대장정 – 조선일보

10년 뒤 총서 완간되면 불교인식 바뀔 것 – 서울신문

우리말 옷 입은 1700년 한국불교 진면목 – 연합뉴스

동국대학교 출판부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용두 작명 역학 연구소
수강생모집.
제기역3번출구
최단기간에 성심껏지도
02)3295-3456
011-9020-8215
달마 김대영

부처인 불자님께!!
청정한 남해 바다!!
청정함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남해인!
자연의 조미료 싱싱한 멸치와
1년이상을 숙성 시켜 발효 된
맑은 멸치 액젓, 해풍을 먹고 자란 마늘을
농민과 어민을 위한 직거래를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도 남해로 오시면
더욱 좋은 추억을 남길 것입니다.
펜션, 민박도(예약 필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070-8838-3776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님 자연의 치유법으로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45세 이하 남.녀 다섯분까지
금화산 관음사
031)533-0741
www.saam.asia

영을 통달하고 싶으신 분 선착순 3명
● 건강 불치병 ,
● 남여 이성문제
● 자녀진도 상담요
010-5446-8846 영통암

염불 역학
1달 속성 완성
(기초에서 통변까지)
승려가 개인지도
숙식가능
011-716-3811

스님 되실 분 모십니다
(금산 복수 소재 사찰)
숙식 무료제공, 포교당 하실 분,
계시는 동안 범패, 염불,
바라, 사주풍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인원 00명 / 동명사
010-8437-8807

동영상 기문둔갑
● 26강좌로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홍국(한국)기문둔갑. 평생의명, 육친, 신수, 일진의 길흉, 결혼날짜, 장사 잘되는 개업식날 잡는 법 등등 강의
● 그외에 사주원리, 용신, 일진내정법
● 명반법(낙화법), 육효, 파동성명학과 오운육기등의 과목을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좌입니다.
www.beumchun.com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험자 우대,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사무직원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대전
010-5792-3000

기도스님, 처사님, 공양주 구합니다.
▷전남 나주
010-2296-7588
061)332-7588

한국선불교조계종 강원도 대덕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9219-76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67-3316
010-8526-3356

공양주 모십니다 남녀 행자 모십니다
▷경기 안성에 산세수려한 도량
010-8954-8033

후원을 책임질 보살님 모십니다
▷작은 불교요양원 청주
043)298-2258
011-9732-85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노보살 원함
02)917-3363

제반 의식에 능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승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월 80만원 65세 미만)
▷경남 창원
010-5040-7584

역학무료 숙식강의 남녀 스님 불자
▷달마선원 대현사
011-223-3334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건축 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체의학 비법전수
1. 중풍환자 혀가 삣뚯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길조암
● 법 명 : 보현(지복금)
● 주 소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법 명 : 성연(최인숙)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신안APT 306동 904호

본 승은 (사)대승불교 본원종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사)대승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경북 대구
- 법당 : 24평
- 요사 : 82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 24평
- 부지 : 110평
-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서울명산에 소재한 기도 영험 도량입니다
- 천하 명당 사찰임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 가액: 12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가액: 16억(절충가)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임야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외서면
- 임야 17,000평 + 40,000평
- 각각 분할판매 가능
- 앞에 2차선 도로, 냇가, 토지 최상
- 가액: 전화상담

010-3158-635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덕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 산세와 도로 대중교통 전기 진입로
- 계곡접한 남향 535평
- 가액: 평당 5만원. 주인직

011-583-2211
054)682-494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 법당 29평, 요사 30평
- 공양실, 창고(콘테이너)
- 대지 264평(기타 80평)
- 가액: 5억 (부동산사절)
- 직거래하실분만연락바람
- 전세도 가능함

010-8710-78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3877-2579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완산초등학교 부근)
- 대지 50평, 건평 30평
- 전망좋음 (주변 대지매입가능)
- 가액: 5천만원
- 포교원 양도시 전북 임실군 기도도량 사용가능

063)231-3436
010-6302-3436

동해바다 사찰터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 대지:540평(평당 100만원 조정)
- 시내중심가 2km 인 산자락
- 연못 2개소, 홍련, 백련 2년생
- 앞-시내, 바다 뒤-산자락
- 야생화 자연스런 조경 전망 및 야경 좋음

010-4544-0815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가정동
- 평수: 65평(3층건물중 3층 전체)
- 법당 20평, 방4, 공양간 大, 화장실 2
- 주차장등 시설완벽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8427-61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사거리 상업지역
- 3층, 60평
- (옥상포함. 전체사용가능함)
- 보증금+시설비 6천만원 월 62만원 ●현법회중
- 뒤에 산과 폭포있음

011-496-64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주택가 횡단보도 사거리
- 2층 30평 ●소불 100불 인등 270등, 탱화10점
- 보증금 4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시세 절반가 1600만원
- 1층은 불교용품점 비구니스님 도량으로 최적

010-2446-2626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3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 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쑥뜸방(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온천 역세권, 아파트 밀집지역,각 노선버스 정류장, 홈플러스, 재래시장 입구
- 법당 겸 쑥뜸방, 시설 깔끔
- 3층, 33평
- 가액: 합 4500만원
- 기술 책임 전수, 비구니 보살님 적합
-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17-560-1035

시내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대지 : 50평
- 1층 : 방4,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 방3, 화장실, 주방
- 3층 : 법당, 지하실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도심속 사찰터 안내

- 31만명 원주시 중심, 삼면이 5m인 높은 성, 아주 큰나무
- 20여 구루. 주변 아파트단지 예정인, 조건 좋고 예쁜 터.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동
- 대지 = 645평
- 건1=2층(50+50평), 지12평
- 건2=허가50평+무허50평
- 가격 = 평당 300만 +α

011-9867-887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중앙동
- 법당과 안쪽 방1칸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이전불사관계로 급 안내

055)262-3679
010-4877-1679

사 찰 안 내

- 위치: 송파, 천호 20분거리
- 부지 133평
- 건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외 30평 ●산신굴법당
- 주변여건 : 4차선 대로선 앞
- 뒤는 야산, 경관 예쁘고 마당 500평 이상 사용중
- 가액: 12억

010-2862-51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실大, 방3 (화장실2, 남향 뒷 야산)
-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 8천만원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 평수 : 30평 ●방3, 법당
- 월 45만원
- 보증금+시설비 900만원 불법포교의 원을 세우신 스님께 공간을 무료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043)532-3271
010-3240-3272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011-329-6606

주 택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5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 1개, 방 1개
- 보증금 1천 5백만원 합 50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공덕1동 531-1번지
- 2층, 3층 각 70평, 합 140평
- 2층 공양실, 휴게실, 찜질방
- 3층 법당, 종무실, 스님방, 부전방, 객실
- 삼존동불, 소불168불
- 2층, 3층 단청 내부시설 완벽,
- 주차 편리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878-3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내, 위치 최상
- 큰법당, 불단 시설, 방 2, 큰거실
- 평수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내방 절충

010-3603-3836
010-5038-45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명시 개봉다리역. 대도로
- 법당, 방2, 공양간 4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법회 운영중
- 광명에 인연있는 스님 전화주십시오

010-8519-07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남해군 창선면
- 대지(텃밭) 90평 방3개, 입식부엌, 아궁이방1개
- 삼천포 앞 바다 보임
- 가액: 3900만원

010-9315-01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근봉마을
- 대지 278평, 건평 50평
- 안채 따로 있음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2,000만원, 월 40만원
- 가액: 3억

010-6720-30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여천리
- 대지 107평
- 건평 총건평 약 190평(텃밭 있음, 채소, 과일나무)
- 지하 20평, 1층 70평,
- 2층 60평 법당, 거실, 방2, 주방거실, 화장실2
- 3층 32평 미륵전 방4, 창고 2
- 포교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 한옥기와 1동 外 토담집 1동
- 대지 外 텃밭 450평
- 교통 편리하며 조용하고 수행하기 좋음.
- 가액: 7500만원 . 도인 은신처

010-5039-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 (사찰 뒤 도유림,주차장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 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면,시내 15분거리
- 뒤 산자락 물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 교통 최고 마을 인접 ● 총대지 650평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화장실2, 부속건물 2동
- 각종 유실수 조경완벽
- 가액: 3억 2천 5백만원

010-4802-3836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광역시, 동촌강과 공항 중간지점
- 부지 37평 ●단층 슬라브, 법당, 삼존불
- 옥상가건물 활용 有
- 지하 넓은 기도실, 주차편리
- 위치여건 최상, 명상절터로
- 무한안 발전성이 있는 곳
- 가액: 1억 2천 7백만원

010-4640-708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 요사채 2동중 황토방 1개
-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9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경관좋은 사찰, 토굴터

- 위치: 경남 합천읍 용계리
- 토목 완료한 전 800평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토곡산 7부능선, 도로와 장래성
- 가액: 평당 5만원

010-9367-10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태안군 태안읍사무실 부근
- 단독주택 조용함(방4, 거실, 욕실)
- 전세 2천으로 시설비 없음
- 스님 영구 해외 이주 관계로 고가구 및 불교 공예품을 문화원 및 민속박물관 하시는 스님께 저가로 인수원함 (팔만대장경외 200권 보시)

010-4285-59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010-3112-3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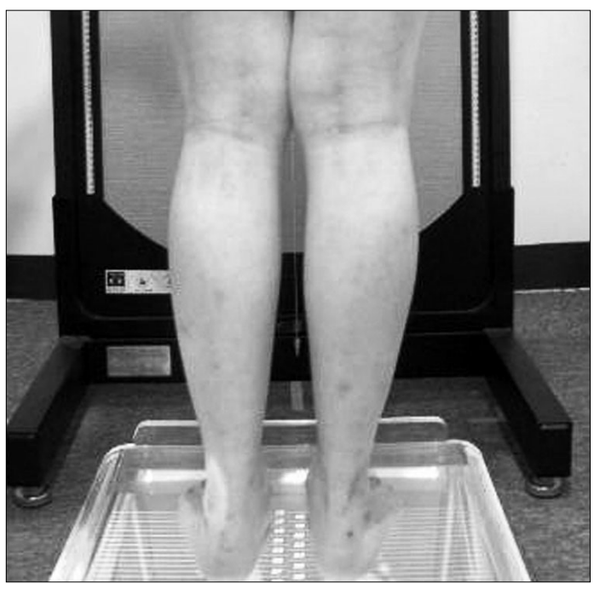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㉘ X형 다리2

체력 약해지고 콤플렉스 유발

X형 다리는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비만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다리 모양입니다. X형 다리형태를 가지신 대부분의 분들은 O형 다리를 가진 분들에 비해 외적인 불편함을 적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X형 다리의 심각성에 대해 걱정을 덜 합니다. 그러나 X형 다리는 두 무릎이 자주 부딪혀 고통스럽거나 쉽게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결함이 있으며, 외관상 기울어 보이는 체형입니다.

X형 다리는 복부와 하체비만을 동반합니다. 또한 전신의 비만축적 피부변형 현상인 셀룰라이트가 나타나며, 허벅지 안쪽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그렇다면 X형 다리가 갖는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X형 다리는 무릎은 붙지만 발목은 붙지 않는다.

우리 몸은 노화와 함께 근력이 약화돼 결국 체력이 약해집니다. X형 다리는 비만체형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뒤뚱거리게 되며, 아름답고 바른 체형으로 미를 발산하기 힘듭니다.

X형 다리는 체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외모 탓에 콤플렉스를 유발시킵니다. 또한 비만 때문에 순환계통의 기능저하로 원활한 순환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발목부위와 발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무릎부분에서는 무릎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대한 하체비만으로 인한 체중의 하중으로 그렇습니다.

골반부분에서는 다리와 골반의 연결부분이 약해져 고관절이 튀어나올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쑤시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만체형의 사람들은 엉덩이가 크고 오래 걷거나 조금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불편해, 주먹으로 두들겨 근육통을 풀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또한 X형 다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X형 다리 때문에 허리가 아픈 이유는 복부비만과 하체비만으로 척추의 앞쪽에 위치한 복근과 장요근(PSOAS MUSCLE)의 근육저하로 인해 쉽게 허리부위에 긴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비만의 체형에서 X형 다리는 허리부터 발까지의 하지에 전신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또한 등과 목까지 불균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바른 자세 습관과 약화된 근육과 경직된 근육에 관한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만드는 노력한다면 바른 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X형 다리 교정은 3~7세의 경우, 경미한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2~3년 내 자연교정되므로 따로 교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꼭 교정을 해줘야 반듯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이 무릎으로 많이 몰리며 발의 축도 평발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형교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X형 다리 교정은 다리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보행하는 인간의 구조적 축을 여러 각도로써 판단해 교정해야 합니다.

X형 다리 교정은 일단 발의 기울기가 안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판단해 기능성 족부보조기를 착용하고 전신 체형교정과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다른 체형불균형과 마찬가지로 상태에 따른 맞춤운동이 처방되고 바른자세 습관이 생활화 돼야합니다. 물론 개별 상태에 따른 교정관리는 필히 이뤄져야 교정이 가능합니다.

X형 다리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는 다리체형 불균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동시에 교정 관리를 잘 해준다면 반듯한 다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날씬한 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⑯ 설사

여름철엔 비감염성도 주의

설사는 횟수에 관계없이 변에 수분이 많은 것을 말한다. 하루에 몇 차례 배변을 할 때도 있고 물처럼 나올 때도 있다. 복부에 경련성의 통증이 있고, 대변이 묽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변조절능력이 없어지고, 설사증상 이외에 두통 · 발열 · 복통 ·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된다. 설사는 정식 병명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균에 의한 감염의 경우도 많지만 여름철에는 비감염성으로도 많이 온다.

세균감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생수를 많이 찾는 요즘 정상적인 수질검사를 마치지 않은 약수를 마시다가 설사나 장내의 세균감염을 일으키는 일들도 많다. 기질적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세균감염이나 식중독, 부분적인 장염, 장의 기능저하로 인한 흡수불량증후군, 장내에 주머니 같은 것이 생기는 게실염 등을 들 수 있다. 기질적인 설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기질적인 설사는 소위 '후진국형'의 병인 경우가 많다.

단순한 설사는 과식이나 찬 것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차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잠을 잔 다음 일어난다. 이런 경우 대개 복부를 따뜻하게 해 주면 풀린다. 찬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것을 먹으며 배에 찜질을 하거나 필요한 부위에 뜸을 뜨면 쉽게 풀린다. 특히 복부의 단전이나 양 무릎 바깥의 족삼리 같은 혈 자리에 뜨는 뜸은 설사의 치료뿐만 아니라 장수혈로도 알려 있을 만큼 좋은 효과가 있다.

신경성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불안, 초조, 갈등, 불쾌감 등이 지속되면 장의 운동이 항진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에게서 많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설사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현상을 가져 온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술, 담배, 운동을 하지 않는 40대의 직장인에서 돌연사가 많다는 결과도 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스트레스는 심호흡이나 운동 그리고 명상이나 단전호흡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알레르기, 술을 많이 먹거나 또는 특정한 약물에 따른 부작용, 자두나 콩을 많이 먹어도 설사는 올 수 있다. 특히 속쓰림이 잦아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지속적인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비감염성으로 오는 기능적인 설사는 대개 단 시간 내에 없어진다.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물줄기처럼 계속되는 설사는 탈수를 유발한다. 탈수증상의 대책으로 수액제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설사가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계속될 때는 무즙과 꿀을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하루에 3~4번 먹는다.

설사와 함께 메스꺼움이 동반되면 얼음만 약간씩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메스꺼움이 없어지면 설사가 멎을 때까지 맑은 액체종류를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설사가 멈추고 2~3일 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되 과일, 술 종류 그리고 계절음식은 당분간 삼가는 것이 좋다.

설사에는 도토리, 부추, 표고버섯, 마늘, 곶감 등이 쓰여 왔다. 도토리묵은 모든 설사에 강력한 해독작용과 정장작용을 하며, 부추는 물에 넣고 끓여 뜨거울 때 마시는 방법이 설사에 많이 쓰여 왔다. 젖먹이의 푸른 설사에는 곶감을 달여 우러난 물을 먹이거나, 표고버섯 2~3개를 약하게 달여 우러난 물에 흑설탕을 타서 먹이기도 했다. 거품변이 나오고 아랫배가 차고 아플 때는 마늘 2~3개를 구워 먹는 방법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어린이에게 만성 설사나 원인불명의 점액성 변이 나올 경우, 불안해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며 계속 울 경우, 그리고 소아나 성인 모두 대변에 혈변이 나오거나 설사가 3일 이상 계속될 경우, 대변에 점액이 섞여 나오거나 발열이나 복통이 수반될 경우, 복부와 직장에 심한 통증이 계속 될 경우, 직장 내의 체온이 높을 경우(38.5도 이상), 입이 마르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소변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㉘ 백학권

여성 무술의 부드러움 지녀

모든 권법은 소림과 무당에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학권 역시 그렇습니다. 남파소림의 백학권은 그 창시자가 '방칠랑'이라는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법이 수수하면서도 남파 소림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부드럽습니다.

백학권은 태극권과 같은 내가권에서 흔히 말하는 '졸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칠랑은 어려서 소림 18나한권을 익히고 백학의 형세를 취해 백학권을 창시했습니다. 백학권에는 원래 비학권, 명학권, 숙학권, 식학권의 네 가지 공법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소개한 영춘권도 비구니가 만들어낸 무술인데 이 역시 그렇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비구승들의 소림만 나와 상대적으로 비구니 무술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술은 비구니를 떠나 나약한 신체 조건의 여성이 이러한 무술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소림권에는 크게 북파 소림권과 남파 소림권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소림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북파는 자세가 좀 더 넓으며 공중으로 도약하는 기법이 많고 보법이 가볍습니다. 동물로 표현한다면 마치 독수리와 같은 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파는 자세가 북파보다 좁으며 각수보다는 권을 많이 사용해 높이 도약하는 기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철사장 및 철포삼, 박수공과 같은 외가기공을 많이 단련합니다. 앞서 간간이 밝혔듯, 이러한 공법은 극히 많은 수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엄청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백학권은 처음에 여성 무술이었기에 외가기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상대보다 체력이 열세이면 단타로 끝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어느 부위는 강력한 내공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사장은 두 가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하나는 손에 장력을 키우고, 둘째는 어깨에 힘을 빼고 치는 타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퇴라는 무기와 같이 쇠공에 줄을 묶어 타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학권은 '고랑보'라는 특이한 보법이 있습니다. 이 보법은 여자가 사뿐히 걷는다는 의미에서 따온 보법으로 백학권을 익히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보법입니다. 백학권은 자세가 좁고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오형수'라는 다섯 가지 기본 공을 토대로 이뤄져 있는데 '오형수'는 백학권을 익히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수법입니다.



백학권은 백학의 형세를 취하여 만들었다.

오형수라는 것은 금형수, 수형수, 화형수, 목형수, 토형수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각각의 수는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오형수는 각 인체의 장기와 연관돼 있어 기공으로 익히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불자정보 794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6동
- 주택 독채 45평
- 주차장 완비
- 법당, 산신각,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삼존불, 방2개, 점포(화실)
- 공양간, 샤워실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 보증금 無 10달 300만원

010-8181-5011

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산세 좋아 편안함 마을인접 남한강이 보이고, 양평 시내 인접
- 수행터 비구니 스님 적합 요양지 투자 적합
- 대지 250평, 건평 50평
- 방4, 화장실3, 대형거실1
- 가액: 2억 9천만원 (융자 1억 2천만원 포함)

010-4736-3567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85-25
- 대지 90평, 건평 약 30평, 방2
- 주방, 법당, 욕실, 화장실, 응접실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033)531-8843
010-6520-1800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 대지 200평 전 합 755평
- 신축황토목주택 약 20평 구조 방 2개 찜질방포함
- 실개울 접, 2차선에서 800미터 끝지점
- 스님모시고 조용히 계실분
- 가액: 9,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 4층 약 60평
- 시설완비
- 가액: 전세 5000만원

010-2880-445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요지. 금오빌딩
- 시가지와 천생산 조망권 아주 좋음
- 실면적 50평, 마당 사용
- 포교원 용도로 특히 우수함
- 가액: 7천만원(대출가능)

010-6790-108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주택 2층 독채 약 30평
- 보증금 無, 10개월 200만원 시설비 450만원
- 약사여래불, 각단탱화
- 일체완비, 법사님 보살님도 계시기에 좋음

010-4166-45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 고속도로 IC 2분거리
- 대지 약 330평
- 법당 25평, 요사 25평
- 주지실, 처소 각 10평
- 해수관세음보살석불입상 (높이 6m), 주차장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011-9388-0975

주머니 속 대장경 품절본 한정판매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 195쪽 | 값 4,500원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옮김 | 205쪽 | 값 4,500원

참선요지 參禪要旨
대성스님 지음 | 278쪽 | 값 6,500원

허공의 딸꾹질
이종찬 지음 | 282쪽 | 값 5,500원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 스님 엮음 | 329쪽 | 값 6,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㉓ 허련

두 스승에게 차 · 그림을 배우다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은 오원 장승업(1843~1897)과 더불어 19세기 조선 화단(畵壇)을 대표하는 인물로, 당대 최고의 서화가(書畵家)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제자였다. 소치라는 호는 김정희가 원의 화가 대치 황공망(大癡 黃公望)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지어줬다.

허련은 진도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림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8세 때 해남 녹우당에 공재 윤두서의 그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윤두서의 후손 윤종민은 초의 선사의 소개로 찾아온 허련을 환대했다. 그리고 흔쾌히 <공재화첩(恭齋畵帖)>과 <고씨화보(顧氏畵譜)>를 허련에게 빌려줬고 허련은 그것을 가지고 대흥사로 가서 모사(模寫)하기도 했다. 당시 대흥사에서 주석하고 있던 초의 선사는 허련의 재주를 아껴서 그에게 방을 내어주는 한편, 김정희에게 소개시켜 줬다. 부드럽고 추상적인 남종화의 화풍을 평생 추구해온 그는 특히 산수화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는데, 구성진 독필과 자유로운 수묵구상을 특징으로 새로운 면모보다는 양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허련의 화풍은 그의 아들 미산 허형, 손자 남농 허건, 그리고 의제 허백련 및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현대까지 계승돼 있고 호남화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초의 선사(1786~1866)는 조선후기 차 문화를 중흥시키고 다서(茶書)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한 인물이다. 그는 차(茶)와 시문(詩文)을 매개로 동갑내기 김정희와 평생의 지기(知己)가 됐으며 김정희를 통해 많은 경화사족(京華士族)들과 교유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초의선사는 1839년 봄 다산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두릉으로 정약용의 큰아들인 정학연 등을 만나러 가는 길에 허련의 그림을 가져가 김정희에게 보였다. 허련의 그림을 본 김정희는 초의 선사에게 허련의 그림솜씨를 칭찬하고 빨리 서울로 데려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허련은 김정희의 문하로 들어가 비로소 체계적으로 서화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허련은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적에도 여러번 찾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림 공부를 계속했다. 그 와중에 김정희의 소개로 신관호, 권돈인 등과 교분을 쌓으면서 활발하게 그림을 그렸다. 허련의 나이 41세에는 헌종께 입시(入侍)하여 서화를 품평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기도 했다. 김정희의 집에서 함께 수학한 여러 문인 등과의 교유 외에도 명문사대부들과의 만남과 교유는 그의 예술에 폭과 깊이를 더해 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은 스승인 김정희의 든든한 후원이 있기도 했지만 그의 빼어난 그림 솜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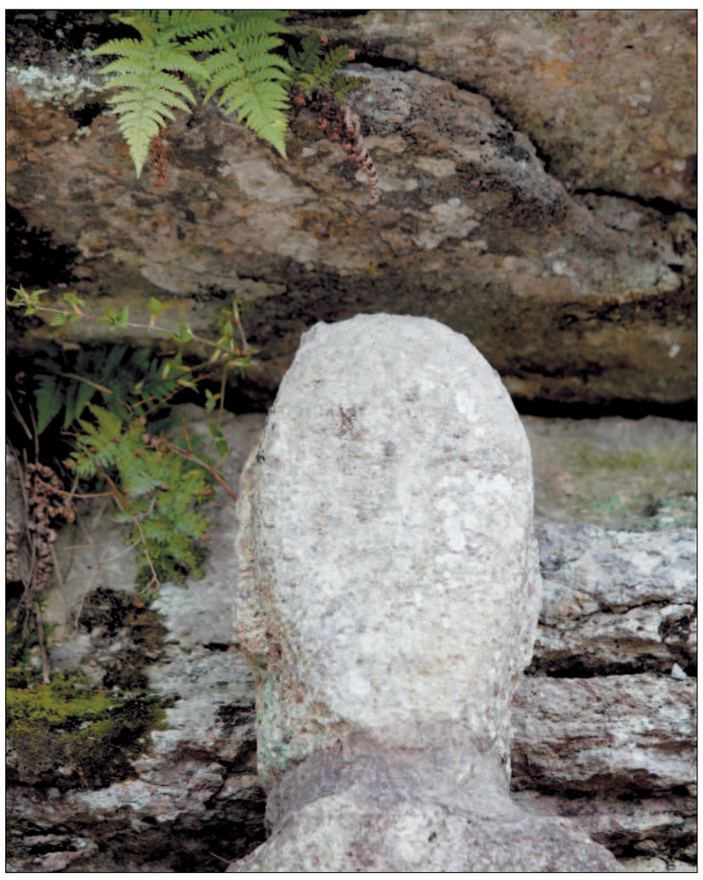
허련 '기명도(器皿圖)'. <한묵청연첩(翰墨淸緣帖)> 종이에 담채. 18.4×25.4cm, 개인 소장.

'기명도(器皿圖)'는 <한묵청연(翰墨淸緣)>첩에 실려 있는 그림 중 하나이다. <한묵청연(翰墨淸緣)>은 1897년 허련의 나이 72세에 서울 전동 민영익의 집을 나오면서 신관호, 신관호의 아들인 신정희, 정건조, 민영익 등에게서 받은 시문과 1877년 남원 선원사 등에서 그린 자신의 그림을 합해 만든 서화첩이다. '기명도'는 배경을 생략하고 차호와 찻잔, 인장을 그렸는데 윤두서의 <공재화첩>에도 동일한 경향의 그림이 있다.

그림 속의 찻잔은 뚜렷한 빙렬(氷裂) 문양이 보이며 차호는 중국 의흥에서 생산된 자사호로 보인다. '기명도'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 '청완도(淸玩圖)'에도 빙렬이 뚜렷한 병과 찻잔이 보인다. 또한 '완당난화도(阮堂蘭花圖)'는 말년의 김정희가 난을 치고 있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난을 치고 있는 책상 위에는 청에서 수입된 채색 찻잔이 놓여 있고 화로 위의 제량호에서는 물이 끓고 있다. 이 채색잔은 조선후기 청을 내왕했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 유행됐을 것이다. 당시 김정희는 청의 고증학파 지식인들과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에 청의 다구를 사용하며 청의 차를 마셨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젊은 시절에는 차의 대가이자 시서화에도 능했던 초의 선사를 스승으로 모셨고 뒤에는 김정희의 문하생이 되어 서화수업을 하였던 허련은 두 스승에게서 차와 그림은 물론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㊹ 운주사 석불

다시 돌이 되어 가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두 눈엔 기다리던 세상이 아쉽게 스쳐가고, 부서진 귓가엔 그 날의 목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기나긴 꿈에서 깼을까. 아니면 이제부터 기나긴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 지워진 입가엔 아무런 말도 없었다.

흙이었다가, 돌이었다가, 부처였다가, 다시 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아니 흙이 되어 가고 있었다.

돌부처가 모두 부서져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이 다시 돌이 되면 누군가 다시 부처를 세울까.

다시 눈을 뜬 부처는 그 옛날 아쉽게 스쳐갔던 시절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문 밖의 석불 하나도 눈이 멀어가고 있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6도 지중연화방대광명장엄

극락을 장엄하고 있는 연못에 핀 연꽃을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못 속에 핀 연꽃마다 향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여러 갈래의 구름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못 주위에는 각종 보석으로 장엄된 난간이 둘러져 있다. 이 도상은 <불설아미타경>의 4쪽 후반에 새겨져 있다.

"연못 속에는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었으며,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 노란 꽃에서는 노란 광채,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 하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池中蓮華 大如車輪 靑色靑光 黃色黃光 赤色赤光 白色白光 微妙 香潔 舍利佛 極樂國土 成就如是 功德莊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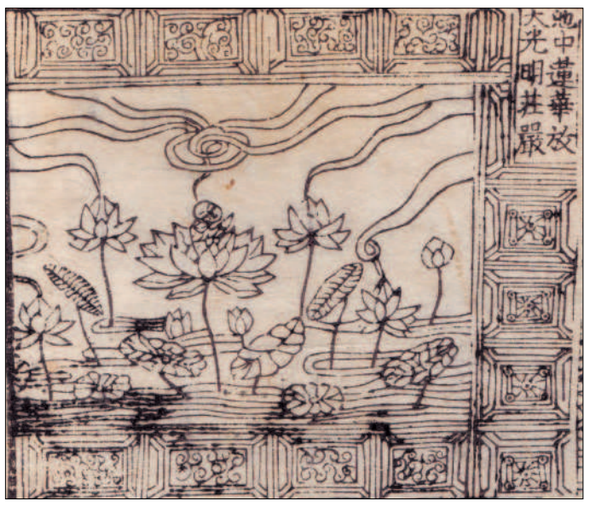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연못에 핀 연꽃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 꽃송이마다 백천억의 꽃잎이 있고, 꽃에서 발하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뤄졌느니라.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명, 흰 빛깔에는 흰 광명이 빛나는데, 이와 같이 검은 빛 · 노란 빛 · 붉은 빛 · 자줏빛 등 각기 광명을 발해 그 찬란함은 해와 달보다 한결 빛나고 밝느니라. 하나의 꽃송이마다 36백천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또한 36백천억의 부처님 모습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금색으로 빛나고 상호는 뛰어나게 훌륭하시느니라. 이 부처님들은 각기 헤아릴 수 없는 백천억의 광명을 비추시고, 두루 시방세계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에 안온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아름다운 연꽃으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연못을 다양한 꽃과 빛깔로 장엄하게 찬탄하는 삽화는 극락세계가 바로 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을 처음 접해보는 불자들은 너무 현란한 말의 잔치에 극락의 허구성만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의 경계가 깊어질수록 윤회의 세계를 믿게 되고 육도윤회 하는 우리의 끝없는 인연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안락의 세계를 꿈꾸게 된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불자라면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가 우리가 가고자하는 이상의 세계를 간절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는 과학적인 발전으로 극장뿐 아니라 우리의 안방에서도 눈의 한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면을 통해 신비의 세계를 체험해 보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신비로움을 경험한 불자라면 극락의 연못 속의 연꽃에서 피어나는 청색청광과 황색황광, 적색적광, 백색백광이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전개될 수 있는 지극한 자연의 아름다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안락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 수레바퀴만한 연꽃에서 품어져 나오는 다양한 빛깔과 소리를 보고 듣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상상을 해보자. 이러한 믿음이 어렵고 힘든 현실의 세계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아닐까.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6도 지중연화방대광명장엄(池中蓮華放大光明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www.buddhashopping.com
NAVER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쳐보세요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0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범어,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법화경 사경책 시리즈
※ 우리말로 해석된 경전사경책은 금강경 1권, 지장경 2권, 법화경 7권(한문/한글/우리말)이 있습니다. 연하게 인쇄된 밑글씨를 따라 사경할 수 있는 우리말 풀이 사경책 시리즈입니다.
한문 11~17호
한글 19~25호
우리말 34~40호
※각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권이상 주문시 할인가 적용됩니다.
할인가 4,200원(1권) 정 가 6,000원(1권)
할인가 3,500원(1권) 정 가 5,000원(1권)
할인가 2,100원(1권) 정 가 3,500원(1권)
한지접은 영가옷(남)/영가옷(여)/위패 30,000원 (100개)
예수재함A (50개) 50,000원 (1박스)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 515-2988, 555-1087, 508-9377~8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항상 자기 뿌리를 믿고 생활을 교재 삼아 공부하세요

스님과의 공부 인연이 궁금합니다

문 스님, 마음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의 인연에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청법가를 부를 때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이란 가사 대목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오는데, 스님과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무척 궁금합니다.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 우리가 과거로부터 부처님 도량에 인연이 됐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한 철 이렇게 도반으로 만난 것도 수억겁을 거쳐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천 년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도리는 완행 코스가 아니라 직행 코스입니다. 자기라는 그 근본은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보석과도 같은,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온 당사자입니다.

불성이라는 말은 정말이지 여러분의 보배인 것이며, 그 보배로 인해서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해 오면서 살아온 그 모습들이 우리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축소돼서 그렇게 들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보여 주는데도 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의 의식이거니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그냥 헛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에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하지만, 자기가 살아나온 거는 바로 정수에 입력이 돼서 그것이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가 어렵다고 늦추지 마시고 항상 자기 뿌리를 믿고 생활을 교재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기 뿌리가 즉 불성입니다. 그 불성으로 하여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자기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부모도 돼 보고 자식도 돼 보고 형제도 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연이 돼서 서로 도반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둘로 보지 마라.' 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엉덩이를 보면 꽁지 떨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겪어온 그 진화된 모습의 자취들이 우리 몸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습니다, 축소가 돼서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모습과 의식들을 다 주인공에다가 합치면 그 모습들이 전부 화해집니다. 보살로 화해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생각을 하면 그 의식들이 다 따라주고 보살로서 화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약사보살이 되고 또는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관세음이 돼 주고, 또 좋은 데로 가지 못하게 되면 지장이 돼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 면으로, 주산신도 되시고 주해신도 되시고 여러 가지로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을 이끌면서 여러분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세세생생을 살아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화돼서 나온 구멍도 거기고 앞으로 들어갈 구멍도 거기고, 지금 이승 저승 교차로가 바로 그 구멍, 그 구멍밖엔 없습니다. 구멍이라고 그러는 것도 방편이지만 그것을 화합해서 조복 받기 위해서는 구멍 없는 구멍에다 다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털구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뜻이 너무 광대하고 무변해서 안 보이는 데서 모든 거를 조절해서 나가는 그 광대하고 무변한 묘법이 이렇게 우리 현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공부는 한 철 이렇게 살면서 세세생생을 내다보고 위로는 조상에 대하여 아래로는 자식들을, 자기가 벌여 놓은 모든 거를 다 회향하도록 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같이 하시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짐승으로, 짐승으로 진화돼서 사람까지 진화가 돼서 이렇게 사람으로 많이 번창하고 그랬는데 또 선신으로서는 진화가 못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모든 여러 생물들도 자유스럽게 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버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참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기고 밀고 넘어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외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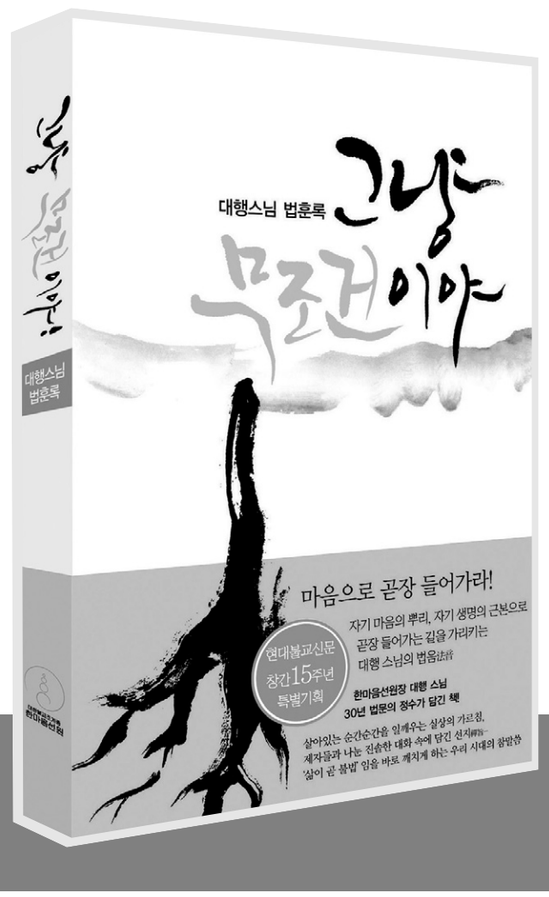
문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님을 뵙고 참 행복한 신행생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먼 데 따로 떨어져서 스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외롭게 신행의 길을 걷고 있는 해외 불자들을 위해서 대자비의 한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아니, 지금은 해외든 한국이든, 인터넷도 있고 법문 테이프도 다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게 아니요 가깝게 있어도 가깝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당,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자리다. 그래서 "부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니까 "나는 나온 새가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죽어 가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 가고 탄생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 탄생해요. 왜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자리로 가겠습니까? 딴 자리가 있나요?

중생들이나 부처 찾지 부처들이 부처를 찾습니까? 둘이 아닌데. 중생도 둘이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마음내는 데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마음내는 데로 인해서, 내면의 그 모든 인과로 인해서 생긴 자기 중생들이 바로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이 대기권을 다 커버해 주고,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처럼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이 통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을 받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 도리를 아시란 얘기죠.

아니, 그렇게 다 해 놨는데 좋은 말을 어떻게 더 하랍니까? 나는 그전에 그랬죠.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 놨는데 하도 부처님한테 매달리기에 부처님을 그냥 도끼로 때려부쉈죠. "그것 좀 내 와!" 아, 그래 부수니까 아이고, 부처님 부순다고 야단이거든요. "이건 쇠야!"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 그 의식을 떼어 내면 그건 쇠죠. 나무로 만든 거는 내가 그 의식만 떼어 내면 그냥 나무예요. 사람도 의식만 빼내면 그냥 송장이 되죠.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25면에서 계속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똑바로 이익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잘살고 잘 먹고 그러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도 못났든 잘났든 쓰다듬고 바르고 여름이면 덥다고 시원한 거 입혀 주고, 겨울이면 춥다고 더운 거 입혀 주고 이러는 것도 아니, 죽을 때는 쫓아가지도 않는데 하물며 뭐를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뭐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다, 불교도 그냥 타의에서, 바깥에서 찾는 미신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생각을 미신으로 하고 행을 한다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들 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니, 세 살 먹은 애도 그거 다 알 텐데 당신이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세 살 먹은 애도 다 알지만 여든 살 아흔 살 먹어도, 백 살 먹어도 행을 못해요. 말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말을 안 해서도 아니 되고 해서도 아니 되고, 그것은 올바른 말만 해서 한데 떨어뜨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아셨죠?

업은 없다 하는데 괴로움이 있어요

문 사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희들한테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생 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세에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답 예전에 어떤 사람이 주근깨가 아주 바짝 끼어 가지고 왔어요. 사는 것도 가난한데 척추에 병이 나 가지고, 심장에도 병이 나고, 병이 안 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애를 못 낳는다고 또 구박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이 못쓰게 됐습니다. 엉금엉금 그냥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 마음에서 너무 가엾은 생각이 들어 갔습니다. '저것도 내가 모를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바로 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나니까 내가 보기가 괴롭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 무조건 네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물러서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다 그냥, 아마 진짜 간절히 거기다 맡겼던 모양입니다.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하더니 병이 차차 나아 가면서 얼굴의 주근깨가 다 없어지면서 세련돼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이 일이 영 안되더니 아, 취직을 못해서 뭐, 6년을 놀았다던가 7년을 놀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회사를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회사원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도 세련된 거 신고 얼굴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아,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고 오니까 시집에서 내쫓기지도 않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 주처를 무시한다고요. 그러곤 고상을 걸어 놓고 부처님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만날 거기서 잘되게 해 달라는 거죠. 뭘 잘되게 해 줍니까, 네? 자기 마음에 달린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상대가 있는 거니까, 나부터 알고 상대를 알아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죠? 너부터 알라고 그래 가지고. 달마 대사도 양 무제한테 "공덕이 얼마가 됩니까?" 하니까 "공덕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말입니다, 달마 대사한테 나중에 결국은 약사발을 안기게 해 가지고, 죽여서 묻고 났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다녀오다가 보니까 아, 달마 대사가 저 주장자에다가, 주자에다가 짚신 하나를 터억 걸어 가지고 메고 덜렁덜렁 오거든요. "어디를 갔다 오나?" "나는 지금 심부름을 하고 옵니다." 하고 달마 대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 서천국으로 가네."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신이 양 무제한테 와서 "난 달마 대사 봤습니다." 하니까 달마 대사는 죽어서 벌써 묻혔는데 달마 대사를 봤다니 그 희한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깐 양 무제가 깜짝 놀라서 가서 산소를 파 보니까 짚신 한 짝만 거기 들어 있고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약사발을 안겨서 죽였는데도 양 무제를 달마 대사는 사랑해서 바로 그 도리를 일러 줬던 겁니다. 그 뒤에 바로 양 무제는 달마 대사한테 한 자기의 행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후회를 하면서 그냥 간절히 회개를 했답니다.

그와 같이 모두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 나보다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 회사가 부도 나서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고 보니 정말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들면서 이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야 다음 날 살 길을 찾아볼 텐데 참 걱정입니다, 스님.

답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도 읊어지고 어떤 때는 아주 먼 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하나. 먹고 사는 거 때문에 모든 게 죽이고 죽고 쫓고 쫓기고 이러지 않나.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나.' 하고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지고 말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릅니다. 속지 않으면 모두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살던, 전자에 자기가 말하고 행하고 한 것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희다 검다, 모른다 안다 뭐 이런 모든 것에 속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못하든지 잘하든지 지켜보고 지켜주고, 그 꽁지에 꽁지를 물고 밤새도록 잠 못 자지 마시고 그럴 때는 '에이구,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그냥 팍 팔아 넣곤 '잠 좀 재워. 네가 있다면 잠 좀 재워.' 이러고선 자는 거죠, 뭐. '네가 없다면 모르지만 네가 있는데, 뭐. 잠 좀 재워.'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시간을 잤다 하면 3시간만 잤다는 생각에, 내가 잠을 못 잤다는 생각에 벌써 피로가 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3시간을 잤든 10시간을 잤든 그런 건 하등 상관이 없이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10시간 잔 거와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건 피로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간 잤다 하는 건 자기 소견이지 아! 제놈들이 자건 말건 내가 왜 그걸 상관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잔다 그래서 맥박이 안 뛰는 법은 없거든요. 뜁니다. 그러니까 덜 잤든 더 잤든 제놈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를 내가 왜 그런 걸 걱정을 합니까? 예? 인생이 요렇게 몸뚱이를 가지고는 얼마나 갑니까만 내 이 생각은 영원한 겁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해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국사로 유명하다는 스님이 아주 재세를 부리고 스님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거길 왕림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더랍니다, 그 국사한테. 그러니까 "아니, 스님께서 왜 그렇게 풀밭에서 애를 쓰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 또 "내가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은 왜 들판이고 산이고 그냥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잠자코 한참 있다가 "내가 지금 또 어디 있는고?" 하니까 깜깜한 겁니다. 문을 탁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요 요망한 거!" 하고 그냥 주장자로 한 대 얻어걸리고선 그냥 도주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공했고 주장자라는 이름조차도 공했으니 때릴 것도 없고 때리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모두 끄달려서 잠 못 자고 병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어떤 회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장사를 하다 망했다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낭패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모두 속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나오는 건 그것대로 그냥 그 주인공에서 모든 게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나 할 거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또 속아서 병들지 마시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야 할 텐데 또 속아서 그냥 서로 으르렁으르렁하고 껄쭉껄쭉하게 사시지 말고요, 우리 다복하게 한 생을 즐겁게 삽시다.

참자기에 대한 맛을 보고 싶은데...

문 나름대로 근본자리에 자리에 놓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참자기에 대한 맛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놓고 가야 될까요?

답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서 오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 오관을 통해서 다시 거기다가 놓는다면, 맡기고 놓는다면, 자기도 자기라고 부를 게 없이 항상 놓고 산다면, 하나하나 내가 하는 것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공에서 나오니까 공에다가 딱! 놓고 믿으면, '아! 거기서 다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는다면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몰락 그냥. 그리고 의정이 나면 추구하고 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홀연히 자기가 자기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소셜 미디어가 각광 받는 이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이 확산되면서 바야흐로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개시 5년 남짓한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트위터는 이미 100억 트윗을 훌쩍 넘겼다. 소위 '퍼블리즌'(Publicity + Citizen)은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개방된 플랫폼(블로그, 유튜브)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생활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공적이고, 일방적이며 일회적 소통을 특징으로 한다면, 소셜 미디어의 세계는 쌍방향의 소통에 피라미드식 전달체계를 특징으로 하여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회 혹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위력은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젊은층들이 '투표 인증샷'이라는 형태로 활용하면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다. 요즘 웬만한 대기업은 마케팅과 홍보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순식간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대략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사회화로의 이행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세대간의 격차논쟁이 있었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 연령대는 전 세대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웹상에서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보다 훨씬 긴밀한 '개인의 대면'을 제공한다. 랜덤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면 곧바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가족, 공동체나 사회의 연대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나아가서 한 개인의 개성마저 상실되는 현재 사회의 압박에 직면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 소셜 미디어는 단순히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사용자는 사적 공간에서 매우 구체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만난다. 따라서 내가 생산한 콘텐츠는 나를 선택한 혹은 내가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며, 이들만이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어떤 점에서 이는 인터넷 게시판보다 더 폐쇄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공간 속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회피한 '나'가 아니라 비록 미약한 존재지만 세상에 공적인 내 의견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투표 인증샷'의 사례처럼 여기서 참여민주주의의 계기가 주어진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소통기술의 변화는 확실히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개인간의 소통공간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강요된 사회적 연대를 붕괴시키고, 개인의 개성을 파괴하였다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공간 속의 개인들은 게릴라전에 의해 조금씩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물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아직까지 트위터 공간은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안된 소비문화에 의해 더 많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개인 블로그보다 한 단계 더 간소화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140자라는 글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사유의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단문형의 차가운 메시지만 전달된다. 결국 소셜 미디어라는 소통기제는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단순한 소비문화의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 설

주지 인사고과제도 정착되려면

조계종이 주지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한다. 7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직할교구 내 4개 사찰의 주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재임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지 인사는 문중과 계파 안배가 원칙 아닌 원칙이었다. 문중과 종단에 영향력이 큰 스님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중생구제의 최일선에서 노심초사해야 할 사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지인사고과제도는 그 동안의 여러 폐해를 씻어내고 사찰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제도이다. 일선 사찰에서도 대체로 이 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평가 항목은 종무행정, 포교 · 복지, 재정, 불사 등 4개 분야에 20여 가지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의견이 덧붙여진다. 각 분야마다 가중치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평가 항목을 통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평가 항목은 곧 사찰 운영의 지침 같은 성격을 지닌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선도하도록 이끄는 항목의 신설이 요청된다. 사찰이 지역사회의 섬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하느냐이다. 지금의 심의위원은 직할교구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원 · 포교원의 소임자스님, 위촉된 2명 등 6명이다. 심의위원을 대폭 늘려서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실정과 요구를 잘 아는 교외인사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해외거주 포교사들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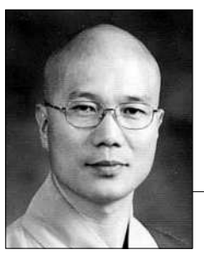
지난 7월 16~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국제포교사대회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포교사들의 애로와 제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티베트 출신으로 동국대 티벳대장경연구소장인 게셰 텐진 남카 스님은 사례발표를 통해 "앞으로 한국불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재가자 모두 교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종권 포교사는 "미주지역의 사찰은 90여 개인데 비해 교회는 4천여 개가 넘는다"고 실상을 소개하고, "영상매체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활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욱 시급한 것은 갈 곳 없는 교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마침 조계종이 해외교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미국을 방문해 현지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해외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의 의견은 물론 미국 내 여러 종교인, 종교정책당국의 견해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오랜 과제다. 우리의 우월성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수승함을 통해 세계일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미 이런 큰 뜻을 지닌 선각들이 일찍이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분들의 노고가 더욱 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칼럼

법현 스님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가까워진 이웃과 교류방법은?

붓다는, 제 스스로를 키우려 하는 본능적 욕구가 고통의 원인(五陰盛苦)이라고 설파했다. 이 가르침을 뒤집어 보면, 본디 없는 것이 속성인 스스로(我)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동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스스로를 줄인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제 아닌 것 즉 남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의 증진정도가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생물학적으로는 잡종교배가 우세하다는 뜻이 되고, 근대의 종교철학 사조로는 다원주의(pluralism)가 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리적으로는 으뜸(元)은 하나(一元)일 수밖에 없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관찰되거나 입증되지 않아서 둘(二元)이라 하거나 그렇지도 않다(不二)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라면 무원(無元)이라 해야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름을 받아들여 조화를 이룰 때 세계의 여러 존재들은 비로소 평화를 이룬다. 행복도 그러한 평화 가운데에 깃든다. 조화, 평화, 행복이 교류(交流)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한국불교의 해외교류는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이 교류였기에 교학(敎學)이든 선행(禪行)이든 유학(留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가 그랬다. 최근에는, 크게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를 통한 단체간 교류와 함께 일본, 스리랑카, 티베트, 몽골, 미얀마, 대만 등의 개인과 사찰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교대표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국제불교 우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수행교환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의 종단과 대한불교진흥원 등이 나서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교육, 직업지원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네팔, 인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불교도우의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했고, 이웃나라를 방문한 우리 불교계 대표가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하여 해당 불교계의 빈축을 샀던 적도 있다. 실제로는 그 나라 불교의 수행과 신행방법을 익히러 갔음에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핏기식 프로그램 진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가면서 기념사진 몇 장 찍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교류나 견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선당(禪堂)의 좌선대가 아닌 불당(佛堂)의 예배석에 앉아 좌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민망하다.

또, 한국불교 대표기구인 종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법론과 상대를 걸맞게 정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교류하는 나라의 법령조차 이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낭비하는 사례도 꽤 있었다. WFB에 여러 종단, 여러 단체가 그 나름대로 참여 하다 보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에서는 참여를 유보하고 있고, 종단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참여하지 말자는 결의가 추진되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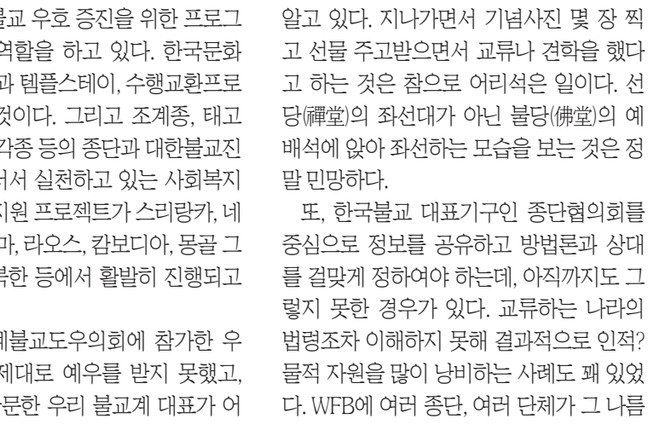
나아가 이웃나라 불교계가 꽤 많이 참가하고 이웃 종교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세계종교의회((The Parliament of World's Religions)에 관한 관심이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 세계종교의회는 100여 나라의 수백 개 종교단체에서 5천 명이 넘는 종교지도자 및 종교인이 참여하여 환경, 평화, 양성평등, 빈곤 등의 문제를 종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종교간 교류 및 이해와 나눔을 위해 활동하는 장이다.

이제 수행이나 교학, 문화 활동 등 배워야 할 것, 나눠야 할 것을 공유하는 바람직한 교류를 통해 더욱 굳건하게 세계인류를 부처님의 바른 법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터자리를 넓게 하는 일을 손잡고 추진해야 한다.

종단마다 교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불교단체인 종단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역할을 나누어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상호이해와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간 대화를 하기 전에 종교내의 대화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한 선학의 지적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내의 종단간의 이해와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Ⅱ·Ⅲ·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래정(來情)·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齋)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 · 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 · 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 · 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 입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